

2008.06

www.airforce.mil.kr Vol.360

공군

Monthly Magazine **Air Force**

항공우주군기획

최초우주인 배출에서
우주비행사 양성으로

한국전쟁기획

한국전쟁 속의 공군력, 무스탕 F-51

공군 역사만화 소개

그대에게/BOUT-I/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이상국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부엌에서 밥이 짓고 찌개가 끓는 동안
 헐렁한 옷을 입고 아이들과 뒹굴며 장난을 치자
 나는 별 서듯 너무 밖으로만 돌았다
 어떤 날은 일찍 돌아가는 게
 세상에 지는 것 같아서
 길에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렸고
 또 어떤 날은 상처를 감추거나
 눈물 자국을 안 보이려고
 온몸에 어둠을 바르고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일찍 돌아가자
 골목길 감나무에게 수고한다고 아는 체를 하고
 언제나 바쁜 슈퍼집 아저씨에게도
 이사 온 사람처럼 인사를 하자
 오늘은 일찍 돌아가서
 아내가 부엌에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
 어둠이 세상 골고루 스며들면
 불을 있는 대로 켜놓고
 손가락을 부딪치며 저녁을 먹자

- 이상국,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어느 농사꾼의 별에서』(창비, 2005)

〈시 해설〉

여러분도 그러셨는지요?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에 지는 것 같아서 밖으로만 돌곤 했는지요? 상처나 눈물 자국을 안 보이려고 어둠이 깊어서야 돌아가기도 했는지요? 오늘은 일찍 돌아가시기를, 헐렁한 옷을 입고 아이들과 뒹굴며 장난도 치기를, 손가락을 부딪치며 저녁을 먹을 수 있기를.

- 시인 도종환



※ 표지설명 : 한국전쟁 당시 승호리 철교를 성공적으로 폭파하고 돌아가는 한국 공군의 무스탕을 만화로 표현하였다.

표지 : 장우룡(만화가)

공군 June 2008 No.360

발행일자 | 2008년 6월 13일(통권 제360호)

발행인 |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정훈공보처

02-506-6295, 042-552-6295

기획·편집 |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중위 손재연, 일병 이호용

디자인·인쇄 | 공군교재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CONTENTS

2008.06

www.airforce.mil.kr Vol.360

- 04 항공우주군기획 _ 최초우주인 배출에서 우주비행사 양성으로
- 10 한국전쟁기획 _ 한국전쟁 속의 공군력, 무스탕 F-51
- 16 공군 역사만화 소개 _ 그대에게/BOU-T I /
- 20 SPACE CHALLENGE 2008 본선 폐막 _ 5월의 푸른 꿈을 하늘로 우주로 보내다
- 22 World-Wide Vision _ 보관 중이나, 잊혀지지는 않았다
- 26 PHOTO ESSAY _ 「공군홍보대사 하늘 날다」 그날의 기록
- 30 참모총장 스케치
- 32 공군은 지금
- 36 여기는 다이만 _ 전술비행은 생존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
- 38 Bird-Alert! _ 보리밭 위의 명가수 종다리
- 41 6월의 공군 역사
- 42 AIR FORCE WARRIOR _ 내 목숨 버려도 조종사는 구한다!
- 46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_ From Zero to Hero
- 48 생각하는 그림 _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 50 우리 건강합시다 _ 여름철 건강을 대비하는 사자 자세
- 52 권순정의 포토에세이 _ 잊지 않겠습니다
- 54 PREVIEW _ 6월의 문화행사
- 56 책마을 _ 책 읽어주는 남자

최초우주인 배출에서 우주비행사 양성으로

글 대령(진) 최재동 | 공군본부 우주발전과장

지난 5월 28일, 참모총장은 한국 최초우주인 이소연 씨를 공군본부로 초청하여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전달하며, 공군 명예 조종사로 위촉했다. 이날 행사는 성공적인 우주인 임무를 완수한 이소연 씨를 환영하고, 축하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내 우주전문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의 백홍열 원장, 천문연구원의 박석재 원장과 우주인 주치의 역할을 담당했던 항공우주의료원의 정기영 대령이 참석했다.



[좌측 : 우주비행에 참가한 공군홍보기를 들고 있는 참모총장과 이소연, 우측 : 주치의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정기영 대령과 이소연]

우주발사체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우주인을 먼저 배출한 것에 대한 의견도 있었지만, 최초우주인이 향후에 우주비행사 배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분야 발전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심어 준 꿈과 자신감, 경제적 부가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하겠다.

이렇게 되기까지 공군은 한국 최초우주인 배출을 위해 우주인 배출기관으로 선정된 항공우주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우주인 배출사업 시작부터 선발기준을 포함한 선발업무 및 후보자 정밀 신체검사, 항공생리훈련, KT-1 훈련기 탑승 등을 지원하였다. 우주인 후보가 최종 선발된 후에는 공군항공우주의료원장인 정기영 대령이 주치의로 근접지원을 담당하는 등 우주인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왔다. 또한, 軍협력 차원으로 참모총장, 전력기획참모부장, 우주발전과장 등이 소유즈 우주선 발사현장을 방문하여 한국 최초우주인의 임무수행을 지원한 바 있고, 러시아 연방우주청장인 페르미노프 등 우주분야 고위인사들과의 공군과 러시아간 그간 우주분야 협력안건을 협의하였다.

최초우주인 탄생관련 우주인 사업 및 훈련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주탐사 기획연구를 추진('07.12.~'08.6.)하고 있는 것과 발맞추어 우주비행사 양성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최초우주인 탄생

우주인 사업은 총사업비 260억원(정부예산 : 60억원, 민간자금 : 200억원), 사업기간이 약 2년 8개월('05.11.~'08.6.)이 소요된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한국은 최초우주인을 배출함으로써 36번째 우주

인을 보유한 국가, 495번째 우주인(49번째 여자 우주인) 배출국이 되었다[도표 1].

가가린 우주인 훈련 센터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후보 2명이 1년 동안 훈련받은 가가린 우주인 훈련 센터(GCTC, Gagarin Cosmonaut Training Center)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북동쪽으로 40km 떨어진 즈보즈노이 고로독에 위치하고 있다. 일명 스타시티(Star City)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총 30여 개 국 422명(2007년 기준)의 우주인 후보자들이 훈련을 받았다.

러시아(구소련)는 1960년 공군 총장의 지시로 우주인 훈련 센터(CTC, Cosmonaut Training Center)를 세웠으며, 1968년부터는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비행에 성공한 공군 전투조종사인 유리 가가린의 이름을 따 가가린 우주인 훈련 센터로 명명하였다. 훈련 센터장은 2번의 우주비행을 경험한 바 있는 공군 중장 치블리에프가 맡고 있다.

대한민국 우주인이 교육받은 대표적인 훈련 시설 및 장비 운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중 무중력 훈련실이 있다. 이는 수중 훈련 장비로서(Pool 지름 23m, 깊이 12m, 직경 23m) 미세/무중력을 체험하고 우주유영 및 우주과학 실험임무를 숙달 훈련하였다. 둘째, 가속도 내성 훈련기가 있다. 수직 5G, 배면 8G를 견뎌야 우주선 탑승이 가능하다. 원심분리기의 기술적 성능은 회전 반경이 18m이고, 회전시 무게는 300t 이상 되며, 최대 G-load는 30G이다. 셋째, 무중력과 우주 진공체험 훈련실이 있다. 일루젠-76(IL-76) 수송기를 이용한 1회 비행시 30초 무중력 체험을 총 15번씩 수행하며, 다목적 실험에 이용된다. 넷째, 소유즈 우주선 시뮬레이터가 있다.

[도표 1] 세계의 여성 우주인

국 가	인 원	주요 여성 우주인
미국	40	▲ 세계 최초 여성 우주인 : Valentina Tereshkova('63. 6. 16.~6. 19., 소련)
캐나다	2	▲ 세계 최초 우주왕복선 여성 선장 : Eileen Collins('96. 2. 3.~11., 미국)
일본	1	▲ 일본 최초 여성 우주인 : Chiaki Mukai('94. 7. 8.~7. 23., 일본)
러시아	3	▲ 민간 최초 여성 우주인 : Anousheh Ansari('06. 9. 21.~29., 미국)
프랑스	1	▲ 영국 최초 여성 우주인 : Helen Sharman('91. 5. 18.~5. 26., 영국)
영국	1	

※ 출처 : <http://www.astronautix.com/articles/womspace.htm>

소유즈는 우주인을 우주로 수송하는 비행체로서, 다양한 시뮬레이터는 비행상의 모든 단계, 즉 궤도진입, 랑데부, 도킹, 궤도비행, 지구귀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제원은 크기 11m×7m, 최대 3인승용, 1회용(캡슐용)이다. 다섯째,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러시아 모듈 시뮬레이터가 있다. 우주정거장에서의 임무수행과 주거 생활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시설로서 국제 우주인 훈련시 사용된다.



[좌측 : 가가린 우주인 훈련 센터 전경, 우측 : 센터장 공군 중장 치블리예프]

우주인이 되기 위한 훈련 내용

센터의 주 기능은 모든 형태의 유인 우주 비행에 실제로 투입되는 우주인들을 교육 및 훈련하는 것이며, 훈련 대상자는 주로 공군 비행사 출신이다. 우주선장/조종사가 되기 위한 평균 훈련 기간은 9~12년이며, 우리나라 우주인과 같은 우주과학자는 6~12개월 훈련을 받는다. 우주인이 받는 훈련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째는 우주 비행체 통제기술과 우주선 내부 시스템 기술 습득훈련이며, 둘째는 우주에서 과학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는 훈련이고, 셋째는 우주 비행시 긴급상황 대비 훈련으로 구분된다. 가가린 센터의 우주인 훈련은 우주인 선발, 일반 우주 비행 훈련 및 우주인 후보자 자격 부여, 우주인 의료 검사, 과학기술 실험 등을 포괄한다.

우주비행사 양성 방안

우주인은 우주선을 조종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우주에서 수행하는 사람으로, 품행 및 성품, 임무수행 능력, 신체(의학)적합성, 언어 능력에서 우수한 자질을 가진 자만이 우주인이 될 수 있으며, 우주인 임무수행을 기준으로 아래의 4가지 Category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주비행사(우주선장/우주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공군인 선발방안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도표 2].

국가 우주탐사 중·장기 계획(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 로드맵, '07. 11. 20.)에 따르면, 달 탐사위성(궤도선) 1호는 2017년에 개발을 착수하여 2020년에 발사를 계획하고 있고, 달 탐사위성(착륙선) 2호는 2021년에 개발 착수하여 2025년에 발사할 예정이다. 유인 우주선 개발계획은 차후 추진 예정이나 우주선장을 양성하는데 12년 정도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미래를 조망하는 해안(慧眼) 견지차원에서 우주비행사 배출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주변국 우주 탐사 계획 및 우주비행사 양성 현황

먼저, 중국은 2007년 달 정복을 위한 1단계로 '창어 1호'를 발사하여 달 상공 200km 상공까지 근접하는데 성공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달 정복 2단계인 '창어 2호'를 발사하여 달 상공 100km 상공까지 근접을 시도할 예정이다. 유인 왕복우주선 발사계획은 현재로는 추진미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은 2007년 9월에 첫 달 탐사위성인 '기쿠야' 발사에 성공하였고, 올해 3월에 미 우주왕복선에 우주비행사로 동승하여 실험동 건설에 참여하고 있으며, 희망이라는 뜻의 '키보' 실험동을 내년에 건설할 예정이다.

우주비행사 양성은 미국은 미 연방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Space Administration), 러시아는 연방우주청(FSA, Federal Space Agency), 중국은 국가항천국(CNSA, 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도표 2]

직 책	임 무
우주선장(Commander, CDR)	임무 총 책임
우주조종사(Pilot Astronauts, PA)	우주선의 조종통제/선장 보좌
우주엔지니어(Mission Specialist, MS)	우주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
우주과학자(Payload Scientist, PS)	우주과학 실험

일본은 우주개발사업단(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 현황은 [도표 3]과 같다.

한국 우주비행사 양성 방안

한국 우주비행사 양성을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고려요소가 있다. 유인 우주탐사 계획 수립 후 민·관·군 공동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우주선진국(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과 기술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주비행사 후보자 선발방안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현역 조종사 및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현역 조종사는 최초 선발시부터 적용하고, 사관생도는 우주비행사 프로그램 지속시 장기적으로 적용하며 우주비행사 신검 기준 적격자를 양성, 관리가 요구된다. 우주비행사의 신검 기준이 공중군무자보다 엄격하다[도표 4].

우주비행사 세부 선발방안

세부 선발방안으로 현역조종사는 양성기간이 5년이 소요되는 관계로 유인 우주탐사선 발사 5년 전에 선발이 요구되며, 지원자 중 '우주비행사 선발기준' 및 교육과학기술부 '한국 우주인 선발절차'를 적용하여 최종 2명을 선발한다. 선발연령은 제트기 1,000시간 도래 기수-5년차인 31세에서 35세로 하고, 선발절차는 1차/서류전형, 2차/신검·체력검정·

필기시험, 3차/정밀신검·적성검사, 4차/우주적성·비행적성으로 최초우주인 선발과정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반면,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선발시는 양성기간이 총 16년[양성기간(5년) + 비행(7년) + 생도생활(4년)]이 요구되며, 입교 생도를 대상으로 우주비행사 신검기준을 적용하여 입학인원의 5%(입교인원 160~180명 수준 고려, 8~9명)를 우주비행사 후보로 선발하여 특별관리(4년)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졸업 후 전투기 1,000시간 도달 시까지 특별관리(7년)가 요구되는데 총 훈련기간 및 내용은 [도표 5]와 같다.

우주비행사 훈련 협력방안

우주비행사 훈련 협력방안은 우주비행사 교육이 가능한 미국, 러시아, 일본과의 협력 세 가지 방안이 있다. 미국은 사업추진시 신뢰성이 있고, 국제우주정거장(ISS) 승무원 지위 확보가 가능하며 한-미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는 반면,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러시아는 유인 우주기술 전반에 걸쳐 습득이 가능하고, ISS 승무원 지위 확보 및 한·러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나, 경제난으로 인해 우주비행사 사업의 지속 추진이 불확실하고, 우주비행사 참여비용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일본은 우주비행사 사업추진에 대한 신뢰성이 있고, 소요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한-일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되는 장점은 있으나, 일본은 상대적으로 우주분야 경험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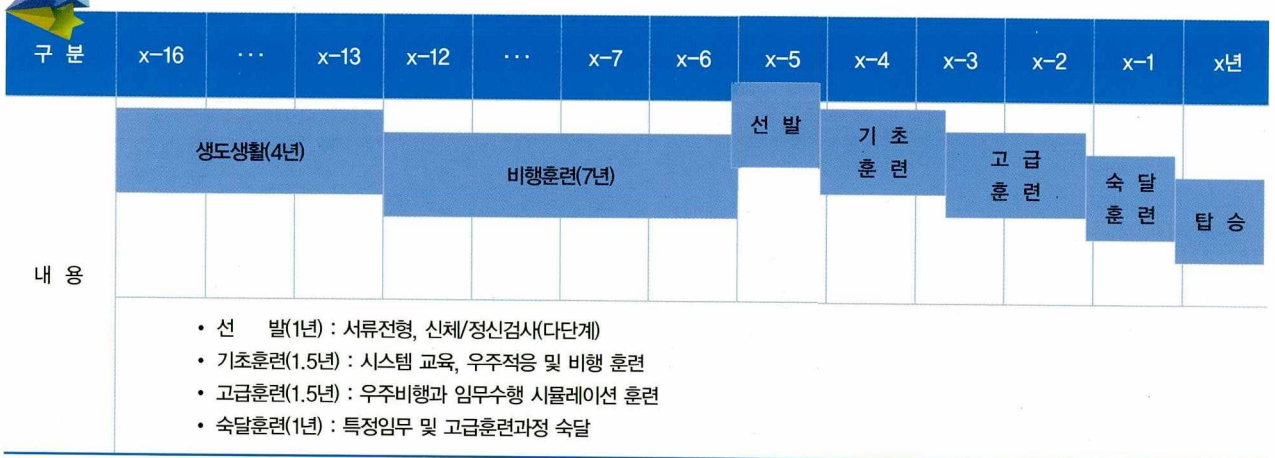
[도표 3]

구 분	미 국	러 시 아
주 관	미 연방항공우주국(NASA)	연방우주청(FSA)
대상/기간	조종사/5년, 일반/12년	조종사/5년, 일반/12년
	* 조종사 : 선발(1년)+기초훈련(1.5년)+고급훈련(1.5년)+숙달훈련(1년) * 일반인 : 전투기 조종 1,000시간 추가(7년, 150시간/년 기준)	
인 원	359명 양성 후 274명 우주비행 실시	422명 양성 후 212명 우주비행 실시
연 령	평균 35.9세	평균 34.6세

[도표 4] 공중 군무자 및 우주비행사 신검기준 비교

구 분	공중 군무자	우주비행사
시 력	0.1 이상	0.28 이상
혈 압	150/90	140/90
혈 당	126mg/dL 이하(공복시)	110mg/dL 이하(공복시)
간기능	콜레스테롤 300mg/dL 이하	콜레스테롤 240mg/dL 이하

[도표 5]



우주비행사를 선발할 향후 단기적인 미래를 생각할 때 일본과의 협력추진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우주비행사 양성 소요예산

한국 최초우주인 양성비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 260억이 소요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한국 우주비행사 양성을 위한 소요예산은 약 400~1,000억 정도로 추산되며 소요 내역은 [도표 6]과 같다.

공군 우주비행사 탄생을 기대하며

공군은 국가 우주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 최초우주인 배출을 위해 항공우주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그 결과 한국 최초우주인 탄생이라는 기념비적인 결과를 거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지속적으로 공군은

국가우주개발사업에 참여와 유인 우주탐사 계획 수립시 민·관·군 공동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으며, 또한 우주선진국과 기술협력이 요구된다.

우주비행사 세부 선발방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관생도를 통한 양성이 총 16년의 장기간이 요구되는 바, 우주비행사를 고려한 생도선발을 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예산 등 소요내역으로 판단해 본 결과 주변국 중 우리와 여러 가지로 비슷한 조건을 가진 일본을 우선 협력국으로 선정하였는바, 구체적 Action Plan을 도출하도록 해야 하겠다. 대담하고 용기 있는 사람, 냉정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 튼튼한 체력, 강인한 정신력을 소유한 사람을 기본으로 한 공군 우주비행사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㉞

[도표 6]

방 안	탑승예상 소요기간	예상 소요예산	소요 내역
미국과 협력	12년	500억	• 우주인 선발/훈련(200억) • ISS 승무원 Living Support Equipment 개발(100억) • 우주실험 준비 및 장비개발(200억)
러시아와 협력	10년	1,000억	• 우주인 훈련(200억) • Zarya 모듈 개조(600억) • 우주실험 준비 및 장비개발(200억)
일본과 협력	12년	400억	• 우주인 훈련(200억) • 일본 JEM 모듈 H/W개발(100억) • 우주실험 준비(100억)





한국전쟁 속의 공군력, 무스탕 MUSTANG F-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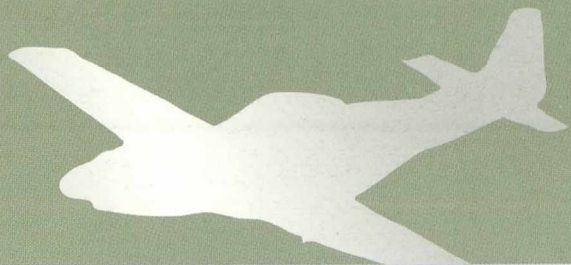
이승진 | 항공전문자유기고가

1939 년대에 들어서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아직 미국이 정식으로 참전을 결정하지 않았던 1940년, 독일과 한창 전쟁을 벌이던 영국은 커티스사의 P-40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입했다. 이 전투기는 독일의 주력 전투기들보다는 성능에서 열세였지만 지상공격 등의 임무에는 나름대로 유용했기 때문에 2선급 전투기로서 쓸모가 있었다.

하지만 이 전투기는 미 육군항공대의 주력전투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수량이 생산되고 있었다(당시에는 미군은 공군이 따로 없었으며 상당히 독립적이긴 했으나 일단은 공군력이 육군에 속해 있었다). 영국은 P-40 전투기를 더 많이 구매하기를 원했으나 커티스사로서는 미군용과 이미 계약한 영국군용을 만들고 있던 것만으로도 거의 생산능력이 한계인 상황이라서 영국이 원하는 만큼의 수량

P-51 전투기의 원형인 NA-73.
노스 아메리카에서 만든 이 실험기를
바탕으로 무스탕 전투기가 탄생했다.





을 더 채울 수 없었다. 그래서 영국은 커티스사 대신 노스 아메리카 항공사에서 P-40 전투기를 면허 생산해 줄 수 없는지 문의했다. 본래 노스 아메리카 항공사는 1930년경 작은 규모로 시작한 회사였다. 이 회사는 우리 공군도 '간국기'라는 이름으로 인연이 있는 베스트셀러 T-6 텍산 훈련기를 만들어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른 회사의 전투기를 만들어 달라는 자존심 상하는 의견에, 노스 아메리카는 영국에 단 120만 달러에 P-40 전투기보다 더 성능이 좋은 전투기를 개발해 주겠다고 장담했다.

사실 노스 아메리카사는 전투기를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영국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이미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 중이었기에 단 120만 달러에 개발하겠다고 장담을 했던 것이다. 이 새로운 전투기에 영국은 무스탕(Mustang) Mk.1이란 이름을 붙였고, 1942년 초부터 실전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겐 무스탕으로 더 친숙한, 새로운 전투기의 시작이었다.

영국 공군은 (영국은 공군이 독립되어 있었다.) 무스탕을 써 본 결과 확실히 P-40보다 만족스러웠다.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길어서 정찰용이나 지상공격용으로 유용했고, 또 낮은 고도라면 독일의 전투기들과 공중전을 벌일 만 했다. 미 육군 항공대도 P-51A 무스탕이란 이름으로 몇 십대를 구매해서 엔진과 프로펠러 등을 약간 더 좋게 개량하여 지상공격용이나 2선급 전투기로 사용했고, 또 A-36 아파치라는 이름으로 급강하 폭격을 하는 공격기로도 개조해서 사용했다.

한편 무스탕의 엔진은 엘리슨사가 만든 것으로, 당시 미 육군항공대의 주력 전투기인 P-38에도 사용하던 것이었다. 고고도에서 성능을 높이려고 큰 터보슈퍼차저라는 것이 달려 있었고 대형 쌍발 전투기인 P-38에서는 비교적 만족할 만한 성능을 냈었는데 비교적 소형 전투기인 P-51에는 너무 큰 물건이었다.

그런데 영국의 한 시험비행 조종사가 엘리슨사의 엔진 대신, 롤스로이스사의 멀린(아더왕 전설에 나오는 마법사 이름) 엔진을 달아볼 것을 제안했다. 멀린 엔진은 당시 영국의 주력 전투기인 스피트파이어에 쓰이던 것으로 명품 엔진 중 하나였다. 멀린 엔진을 장착한 무스탕은

비행 중인 무스탕.

사진의 기체는 영국과 같은 영연방 소속인 캐나다군의 전투기로 도색 자체는 영국군의 것과 거의 흡사하다. 비교적 후기형으로 영국군 명칭으로는 무스탕 MK.IV, 미군 명칭으로는 P-51D에 해당한다.

사진은 2차대전 중이 아니라 최근 에어쇼에서 기념비행 중인 장면이다.





마법에 걸린 듯 엄청난 성능을 선보였다. 고도 7.6km에서 무려 최대속도 710km/h를 냈던 것이다. 이것은 무스탕은 물론, 영국의 스피트파이어 MK.IX의 성능을 훌쩍 뛰어넘는 성능이었다.

미 육군 항공대 역시 무스탕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다. 당시 마침 열린 엔진을 미국 내에서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무스탕에도 이 엔진을 달고 P-51B라는 이름을 붙였다. 미 육군 항공대로선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무스탕의 비행거리였다. 고고도에서도 효율적으로 날 수 있게 됨에 따라 영국에서 출발하면 독일 본토를 갔다가 왕복할 수 있을 정도로 비행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 육군 항공대는 대형 폭격기로 주간에 독일 본토를 폭격했다. 미군의 폭격기는 당시 기준으로는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폭격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낮에 출격했던 것인데, 문제는 이들 폭격기를 호위해줄 만한 전투기가 없었던 것이다. 당시 미 육군의 주력 전투기인 P-38과 P-47은 보기 드문 대형 전투기였음에도 독일 국경 근처만 가면 연료부족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독일 국경을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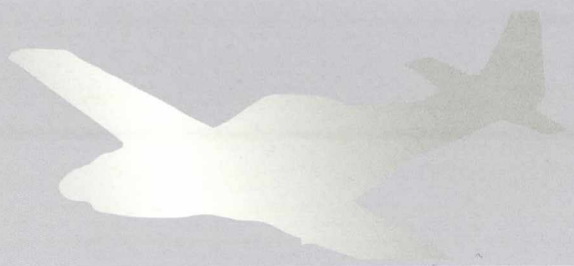
서면 미 육군이 폭격기들은 독일 전투기들에게 시달려야만 했다. 그런데 이제 독일 국경을 넘어서도 폭격기들을 호위해줄 수 있으면서도, 독일 전투기와 충분히 맞상대할 만한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등장한 것이었다.

영국공군을 위해 만들게 된 전투기가 바로 미 육군 항공대가 찾던 그 전투기였다. 성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격도 P-38이나 P-47보다 싸고 조종도 상대적으로 더 쉬웠기 때문에 미 육군 항공대의 주력 전투기는 빠르게 P-51로 바뀌어 갔다. 특히 전쟁이 끝나감에 따라 독일군은 거의 모든 전투기를 상실해서 공중의 적이 없어져 갔고, P-51은 폭탄과 로켓을 이용해서 지상공격 임무에서도 활약하게 되었다.

2차 대전 중 미 육군 항공대 최고의 전투기였던 P-51이었지만 시대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바로 제트 전투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2차 대전이 끝나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대치하는 냉전이 곧 찾아왔고, 2차 대전 끝무렵부터 등장한 제트전투기의 성능은 이제는 P-51로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



B-17 플라잉 포트리스 전투기와 함께 날고 있는 P-51D 무스탕. 폭격기 편대의 든든한 호위기였다. 이 사진 역시 최근의 에어쇼에서 기념비행 중인 장면



한편 1947년 미 육군항공대가 육군에서 독립함에 따라 전투기를 뜻하는 기호가 P(Pursuiter : 추적기)에서 F(Fighter : 전투기)로 바뀌면서 P-51은 F-51로 이름이 바뀌었다.

2차 대전이 끝난 지 5년이 지난 1950년, 6·25가 발발함에 따라 F-51은 다시 한 번 전장에 투입되었다. 이미 공중전은 제트전투기들이 전담하게 된 시대였지만, 프로펠러 전투기인 F-51은 지상공격에서 여전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다. 당시의 제트 전투기들은 고속비행에는 적합했지만, 낮은 고도에서 저속으로 비행하는 능력은 도리어 프로펠러 전투기가 나았던 것이다.

하지만 F-51은 프로펠러 전투기를 상대로는 여전히 강력한 성능을 발휘했으며, 6월 29일 맥아더 원수가 시찰을 위해 수원에 도착할 때 호위기로 따라온 F-51 4기가 때마침 상공에 나타난 북한군 소속의 Yak-9 전투기와 교전, 이들을 모두 격추시키기도 했다.

한편 한국 공군은 6·25 발발 당시 소수의 AT-6 텍산

훈련 및 공격기와 L-4, L-5 연락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전투기는 갖지 못했었다. 전쟁이 발발한 지 2일 뒤인 6월 27일, 한국군 조종사들이 주일 미군 기지에 급파되었으며, 이곳에서 F-51 전투기에 대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미군은 군사원조의 일환으로 바우트 원(Bout one : 한판 승부)이란 계획명으로 한국군에게 F-51 전투기를 지원해 주고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여 작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본래 목사였으나 2차 대전을 계기로 베테랑 전투 조종사가 된 딘 헤스 소령이 바우트 원 계획을 이끌었으며, 그는 미군 사령부가 한국 공군의 작전 능력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기에 단순히 한국과 미국과의 군사적 우호관계를 과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던 바우트 원 계획에 열성을 갖고 참여하여 한국 공군이 실질적인 작전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썼다.

1950년 7월 2일, 파견되었던 한국 공군 조종사들은 F-51 전투기 10기를 끌고 대구 기지로 도착했다(이 전투기들 중에는 앞서 Yak 전투기를 격추시킨 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던 F-51도 포함되어 있었다). 바우트 원 편대로

6·25 당시 한국 공군의 F-51D.

10기의 기체 중 하나로 기체번호는 13을 썼다. 유럽쪽은 불길하다고 사 용하지 않는 숫자이지만 우리나라는 관계없이 썼으며 대신 4라는 숫자를 꺼렸다고 한다.





불리던 한국 공군의 F-51 편대는 한때 미공군의 F-51 비행부대에 흡수당할 뻔한 적도 있었지만 한국 정부와 공군의 강력한 반대, 그리고 딘 소령의 탄원 덕에 계속 남을 수 있었다. 이후 미군으로부터 추가적으로 F-51을 인도 받으면서 한국 공군의 F-51은 수적으로 늘어나서 더 왕성한 작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51년 8월, 드디어 한국 공군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작전권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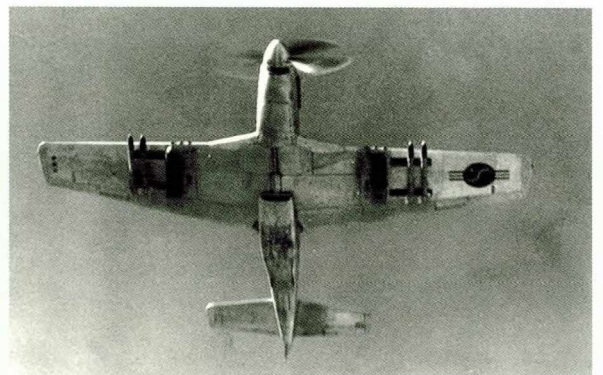
1952년 1월경, UN 연합군의 술한 폭격 속에서도 버티고 있던 철교 하나가 있었다. 이는 대동강을 가로지르던 승호리 철교로, 북한군의 주요 보급로였기 때문에 강력한 대공

포로 보호받았고 철교는 모래포대를 둘러서 일반적인 기총 공격이나 로켓으로는 파괴가 곤란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목표물임에도 번번이 공격이 실패함에 따라 연합군은 이곳에 대한 공격을 한국 공군에 맡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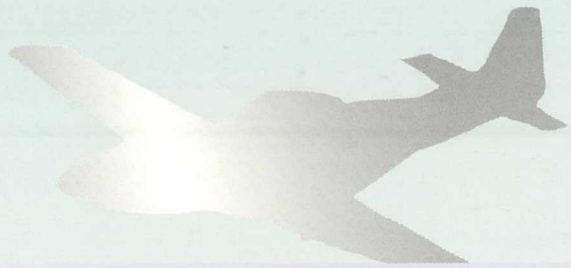
한국 공군 역시 1차 시도에서는 3회에 걸친 공습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대공포 탓에 폭격을 시작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다음 날 대공포에 더 많이 노출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평상시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접근, 정확히 폭탄과 로켓탄을 명중시켜서 승호리 철교를 폭파할 수 있었다. 한국 공군은 전쟁이 끝나고 3년 뒤인 1955년에 F-86F 제트 전투기를 도입할 때까지 F-51을 주력 전투기로 유지했



바우트 원 편대의 18번기는 바로 딘 헤스 소령의 무스탕이다. 기수에 “신념의 조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는 “By Faith I Fly(나는 신념에 의해 난다)”라는 딘 헤스 소령의 좌우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지어줬다고 한다. 이 문구가 적혀 있던 무스탕은 딘 헤스 소령의 전용기뿐이다. 사진 속의 인물은 당시 18번기 전문 정비요원이었던 최원문 현 한국항공기술협회 명예회장



이륙 중인 한국 공군의 F-51 전투기. 지상공격을 위해 주날개 밑에 5인치 로켓과 500파운드 폭탄을 달고 있다.



으며, 현재 퇴역한 F-51 전투기는 용산 전쟁기념박물관이나 공군사관학교 전시장 등에서 볼 수 있다.

물론 이 당시 F-51을 운용했던 것은 미 공군과 한국 공군만은 아니었다. 미국과 우호적이었던 장개석 총통이 집권 하던 시절, 미군으로부터 공여 받았던 F-51 중 일부를 중 공군이 6·25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다만, 이 F-51들이 6·25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본래 F-51을 구매했던 영국 공군 및 영연방 소속이었던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도 F-51을 구매했으며,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소속의 F-51 부대 일부는 한국 전선에도 참가했다.

이 외에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필리핀 및 남미의 국가들이 짧게는 1950년 후반, 길게는 1970년대 까지도 F-51을 운용했다. ㉮



제트 항공기들과 함께 비행 중인 F-51 무스탕. 전쟁 중에 워낙 많은 항공기가 생산된 덕에 민간에도 많이 팔렸고, 또 현재도 상당히 유명한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쇼에서 자주 시범비행을 보이곤 한다.

이제부터 소개할 이야기가 바로,
그때의 젊은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느 젊은이들과 같이,
그들만의 20대 청춘을 보내는 이야기.
그들이 세상을 겪는 이야기.
그들이 사랑을 하는 이야기.

한창 아름다워야 할 그들의 20대 청춘은

1950년

이제 갓 독립한 자신의 나라가
전쟁을 맞게 된 해를 시작으로
지금의 우리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같은 젊음으로 다른 시대를 만나
다르게 살아야했던
그때의 젊은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초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이면 최중위도, 김원사도, 우중사도, 박병장도, 나이를 불문한 수많은 공군인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다. 일단은 웹진 공감의 업데이트날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등수 땀글달기 놀이를 하기 위험일까? 아니다. 이들이 진정 기다리는 것은 웹진 공감에 연재되고 있는 웅장한 스케일의 공군역사만화 「그대에게-바우트 원」 때문이다.

「그대에게-바우트 원」은 6·25를 배경으로 공군 창군 초창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전쟁을 통해 자라난 공군인 만큼 그 역사도 남다르다. 그런데 작가 장우룡 씨는 어떤 인연으로 이 만화를 그리게 되었을까? 2004년 밀리터리 만화 〈알라모〉를 그렸던 작가는 2005년부터 월간항공이라는 잡지에 항공의 시대라는 항공역사만화를 그리게 된다. 항공역사의 초창기부터 라이트 형제까지의 항공 관련이야기들을 다룬 이 만화를 1년간 연재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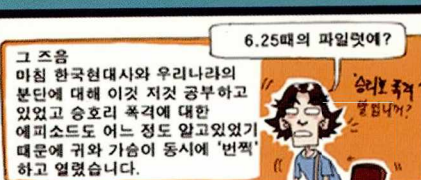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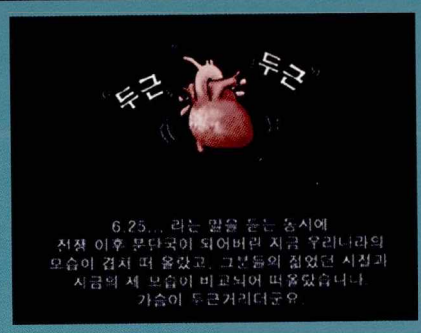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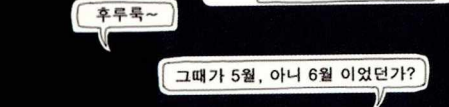
A story of flight pilots of the R.O.K. AIR FORCE

그대에게 BOUT-I

원고장리 편집실 그림 장우룡



* 본 만화 '그대에게/BOUT-I' 에서 언급되는 인물과 내용들은 공군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 작가의 연재를 아쉬워했던 한 월간항공 기자의 제안은 작가의 가슴을 뛰게 하기에 충분했고 그는 공군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 만화는 같은 젊음으로 다른 시대, 6·25를 만나 다르게 살아야 했던 우리와 같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리고자 한다. 실제로 10대의 항공기로 출발한 미공군 헤스소령의 BOUT-I 부대는 공군 조종사 10명에게 무스탕 10대를 제공하고 훈련하는 임무를 맡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이 부대는 적은 전력으로 엄청난 전과를 올렸고 당시 참여했던 핵심멤버들이 대한민국 공군의 초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기의 이야기를 모르면 대한민국 공군을 이해한다고 감히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간은 어느덧 1950년 하기도 6월 25일.

1945년.
광복 후 우리나라는 가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광복 이전까지 모든 것을 일제의 명령과 관리 아래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도 했고,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독립국가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시대여서 가난하고 서투르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실력 가운데에서도 총 병력 70여 명의 '항공기지부대'가 탄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얼마 후, 미국동공군 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Gorge E. Stratemeyer) 중장이 급히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이때 한국으로의 전투기 원조문제가 논의됩니다.

우하하하!!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부대 창설이다!!

우와우~
그럼~
비행기는
몇 대.. 정도?

0대.

네?

0대.

0대..

하지만 같은 해 9월, 이 가난한 항공기지부대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비행기가 생긴거죠.



바로 이 비행기.
미군으로부터 10대의 L-4 연락기 10대를 미 조립
상태로 인수해서 우리정비사들의 손으로 조립을
했습니다. 명칭은 'Grasshopper'. '메뚜기'란 이름에
걸맞게 동체와 날개가 천으로 되어있는 작고 가벼운
2인승 연락용 비행기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진정한 '항공부대'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럼,
당장 한국공군
조종사 중에 F-51을
훈련 없이 탈수 있는
조종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10... 명
정도 ...

10명...
요?

중소. 우선
10대의 F-51을
드리겠소. 즉시
일본에서 비행기를
인수해 올 10명을
선발해 주시오.

의외로 간단하게 10대의 무스탕을 제공하겠다는
결정이 납니다.

물론, 10대의 전투기로 이 급박한 전세를 뒤바꿀 수
없다는 걸 모두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뉘놓고
마냥 앉아있을 수는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곧 참모총장의 직권으로 10인이 선정되고,
이 10명은 26일 저녁 7시, C-47 수송기를 타고
일본 이다즈케 기지로 출발합니다.

이 때부터 한국공군 최초의 전투기 조종사가 될 이 10명은 미군으로 부터 F-51에 관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훈련을 받아야 할 이때,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등 기상악화로 인해 5일 동안 비행 훈련을 하지도 못하고 마음만 끓이게 됩니다.

첫 날부터 계속 내리는 건.

후우-

후-

이와 동시에 미군은 한국공군의 지원과 조종사를 훈련시킬 목적으로 'Bout-I'부대를 편성해서 대구(K-2)기지로 파견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부대의 부대장이 바로 '신념의 조인'으로 유명한 헤스(Dean E. Hess) 소령입니다. 이번 만화에도 등장 할 예정이지만 잠시, 이 'Bout-I'부대를 맡으면서 느꼈던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임무는 한국에서 Bout-I이라는 새 부대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미 조종사 10을 포함해서 총 114명을 이끌고 가서 한국 조종사들이 F-51 무스탕을 사용토록 훈련시키는 것이었죠.

이 사진은 헤스소령의 정비사로 근무했던 '에비'의 공군대령 최원문 씨를 인터뷰하면서 촬영해 온 헤스씨의 최근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 헤스씨도, 이 사진의 주인공 최원문씨도 자신의 젊음을 전쟁과 함께 보내고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셨더군요.

하지만, 한국공군에서 핵심전력으로 사용될 F-51은 당시로서는 거의 쓸모없는 비행기였어요. 한국 공군이 2,000명 정도 라지만 이들 대부분은 정비사들이라고 들어요.

처음엔 무척이나 당황했어요...

우리 부대는 자원자들로만 구성이 되었는데, 한 명은 일본 여성과의 결혼을 피하기 위해서, 또 한 명은 일본 유부녀들과 관계를 가지고는 성난 남편을 피하기 위해서 자원한 사람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영망이었죠.



<그의 저서전, 'Battle Hymn'에서 발췌>



물론, 한국에서 작전을 시작하면서 그들에 대한 생각들은 곧 '단결력이 강한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바뀌더군요.

우리의 10인은 새로운 이 비행기, 무스탕을 고작 30여 분씩 타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고국이 전쟁에 빠져있는 상태라 마음이 편치 못했던 그들은 정확히 7일 후, 태극마크도 미처 그리지 못한 미군의 기체를 몰고 일본을 떠나 우리나라 대구로 돌아옵니다.



<한국 공군의 무스탕/선명한 태극마크로 보아 전쟁 중 후반으로 보이는 사진>

겨우 30여 분의 비행훈련으로 고국까지 돌아온 것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처음 타보는 비행기로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후 작전에서의 위험성은 그 누가 보더라도 보통을 넘어서는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공군은 다른 나라에게 빌린 10대의 프로펠러기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만화는 비록 작가의 감성이 개입된 픽션이지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그림을 통해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젊은 이들의 애환은 공군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것이 수많은 공군 가족이 금요일 아침을 기다리는 이유가 아닐까? 공군 초창기의 정신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 공감 웹진에 접속해서 지나간 「그대에게-바우트 원」을 주말 밤을 통해 한 번 일독할 것을 권한다.



5월의 푸른 꿈을 하늘로 우주로 보내다

- 국내 최대 항공우주축제
'제30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08'
본선대회 폐막

자료제공 공군본부 공보과 사진 중사 권보현

항공우주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주역들의 축제인 '제30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08' 본선대회가 5월 18일(일) 공군사관학교(충북 청원군 소재)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하늘과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국민들의 항공사상을 양양하고자 지난 1979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본 대회는 연간 1만 명 이상의 항공기 마니아들이 충출동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과학축제로 성장하였다.

특히, 올해 대회부터 활동영역을 '우주' 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공군의 의지를 온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명칭을 기존의 모형항공기대회에서 「SPACE CHALLENGE」로 변경하였으며, 종목도 자유비행(고무동력기, 글라이더)과 동력비행(유·무선 조종기 등) 부문 이외에 물로켓 경기를 신설하여 의미를 더하였다.

이번 대회 자유비행 부문 본선에 출전한 1,300여 명의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은 지난 4월 5일부터 한 달여 간에 걸쳐 진행된 전국 15개 지역의 예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실력자들로서, 본선대회에서는 이들 중 모형항공기

날리기의 '왕중왕'을 가렸다. 또한, 동력비행 부문은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 국내 정상급 실력을 가진 참가선수들의 수준 높은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다.

올해 신설된 물로켓 부문에는 총 560여 명의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참가했다. 경기는 공군의 탑진 선발방식과 유사했다. 본인이 제작한 물로켓을 직접 발사하여 70m 떨어진 표적에 최대한 가까이 착지시킬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른 종목과 달리 표적에 정확히 맞추는 방식이어서 경기를 보는 재미도 남달랐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올해 대회 개막식에서는 공군의 변화와 미래상을 제시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공군인의 의지를 표현한 '공군 CI 선포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공군 CI는 기존 공군 마크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영공방위를 전담하는 항공우주군으로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공군의 의지를 담고 있다.

대회 30회를 맞이하는 만큼 어느 해보다 훨씬 다채롭고 흥미진진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었다. 먼저, 국민들의 우주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우주인 체험코너를 마련하였다. 우주인들이 사용하는 로봇팔 조종 체험과 우주유영 체험, 소유즈 로켓, 국제우주정거장, 달착륙선 등과 같은 우주장비의 정밀축소모형을 관람을 통해 어린이들은 우주에 대한 꿈을 더욱 키워 나갔다. 이 밖에도 T-103 훈련기 축하비행, KT-1 훈련기 기동시범, 제트엔진이 장착된 F-15 전투기와 F-16 전투기의 실물축소기 시범비행, 공군 군악대 · MBC 어린이합창단 · 공사 생도들의 특별공연 등이 펼쳐졌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과학축제로 성장한 SPACE CHALLENGE 2008.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년에 있을 제31회 대회를 기약해 보자. Af



Davis-Monthan 기지 보관 지역에 F-4 Phantom II 제트기가 줄줄이 세워져 있다. 1958년에 첫 비행을 한 이 제트기는 아직도 훈련용 무인기로서, 미공군에서 사용 중이다.



보관 중이나, 잊혀지지 않는 않았다 STORED but not forgotten

- 포장 보호 중인 항공기들도 아직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어 -

원문 美공군 (Airman) Magazine 번역 박준오

"STORED but not forgotten", (Airman), March-April 2008, pp.3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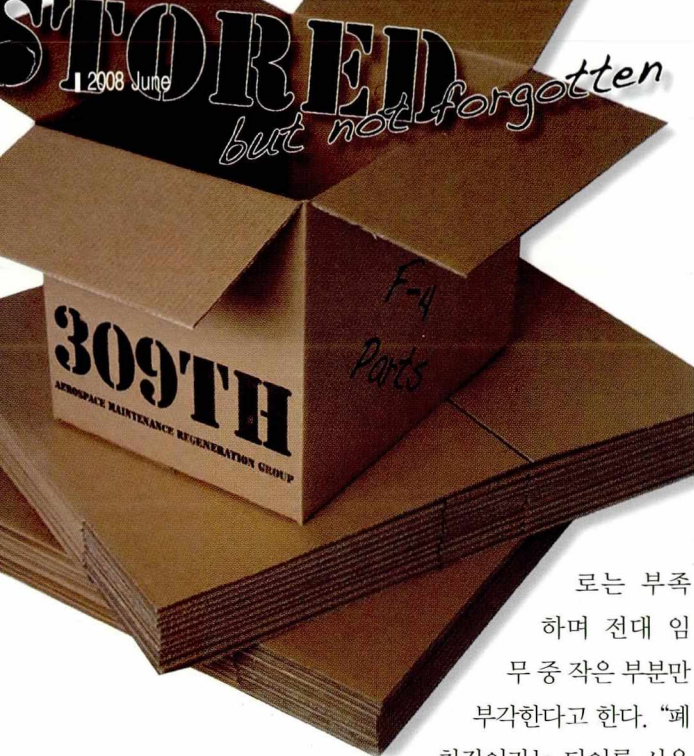
글 Jeremy Larlee 병장 사진 Jeffrey Wolfe 하사

꼬리번호가 72-1489인 F-4 Phantom II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창고를 가로질렀을 당시,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걸프전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근 17년간 이 팬텀기는 상당히 외로웠다. 어떻게 보면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오래된 이 전투마는 약간 얼룩이진 듯 하였다. 위장 페인트가 기후 및 동지를 트는 새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고치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두꺼운 밝은 흰색 합성고무의 색과 더욱 대조되면서 그런 것이다.

긴 세월 동안 이 항공기의 집은 애리조나 주 Davis-

Monthan 공군기지 내 광활한 2,600에이커의 사막 벌판이었다. 여기는 2차대전 이래 수천 대의 항공기의 안식처였다. 토끼, 코요테, 방울뱀 및 미국 독도마뱀도 이곳에 서식하고, 340억 달러어치의 항공기 4,400대, 항공우주기 29대 및 기타 장비 역시 공생한다.

대부분은 이 보관 지역을 “폐차장bone yard”이라는 명칭으로 알고 있다. 보관 작전을 총괄하는 것은 제309항공우주 정비 및 재생 전대이다. 전대의 F-4 편대장인 Don Hookstra 씨는 “폐차장”이라는 명칭이 보관 지역의 명칭으



로는 부족하며 전대 임무 중 작은 부분만 부각한다고 한다. “폐차장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면 모두 이 지역을 쓰레기장이라고 간주한다. 이 항공기들은 쓰레기가 아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국방부 역시 이 항공기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Davis-Monthan의 탁월한 환경을 고려하여 항공기를 이곳으로 보내어 보관한다. 보관 후 항공기 및 장비는 계속 소중한 국방부 자산이며 공군 임무의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이 오래된 팬텀기 역시 그러한 사례였다. 오랜 휴식기의 끝에 전대 작업자들은 흰색 포장을 벗긴 후, 항공기를 분해 검사한 뒤 훈련용 무인항공기로서 비행 가능하다고 인증하였다. 이 항공기의 새로운 임무는 신세대 공군 조종사들이 가장 실제적인 최고의 훈련을 받도록 돕고 무장 및 장비를 시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임무 완수 시 다시 보관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기 지정된 훈련 시간을 비행 후,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이 오래된 항공기를 격추할 것이다.

Jon Wendell 중령은 전대의 비행시험처장이다. 이 팬텀이 비행 인가를 받았을 때, 그와 그의 후방석 조종사 Rick Nelson은 항공기를 시험비행하여 임무 수행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항공기를 적당한 수준으로만 운용하지 않았으며, 초음속으로도 비행하고 48,000피트의 고공에서도 비행하였다. 이는 민항기 고도보다 적어도 10,000피트 더 높은 것이다. “이 항공기는 비행한 지 상당히 오래 되었다. 이제 비행을 하여 비행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재생이라 함은 낙후된 전투체계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며 전대의 특징이다. 실제로 F-4가 노후화 현상의 영향을 덜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전대가 사용하는 보관 기

술에 있다. 항공기가 사막지대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귀빈대우를 받는다. 먼저 항공기를 보호할 Spraylat 덮개가 항공기 표면에 붙도록 철저하게 세척을 한다. Spraylat은 항공기를 기후로부터 보호하는 합성고무 덮개이다. 먼저 두 겹의 Spraylat을 입힌 후 반사 기능이 있는 흰색 덮개를 씌워 항공기 내에 열이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이를 통해 외부 기온에 비해 항공기 기온이 화씨 10도 이상 변화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및 동물들이 중요 부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동면이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들은 경유를 주입하여 항공기 엔진을 가동한다. 이 기름이 움직이는 부품들을 뒤덮으며, 이를 통해 장기간 보존력을 증대한다. 또한 보존 지역은 장기간 항공기 보관을 위한 최적의 기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낮은 습도는 부식 및 기타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의 부패를 최소화한다. 또 하나의 이점은 보관 지역 밑에 깔리치 토양이 한 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약 18인치가 되는 이 토양층은 콘크리트 수준의 경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콘크리트 주기장을 건설할 필요가 없이 가장 육중한 항공기들을 땅 위로 인도할 수 있다.

전대의 분해 검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Chris Excell은 기상 조건 및 보관 절차를 통해 항공기들이 큰 탈 없이 세월을 보낸다고 말한다. “여기 있는 항공기의 보존율은 아주 우수하다. 15년 이상 보존한 항공기들도 있지만 사막 환경으로 인하여 상당히 깨끗한 항공기들에서 작업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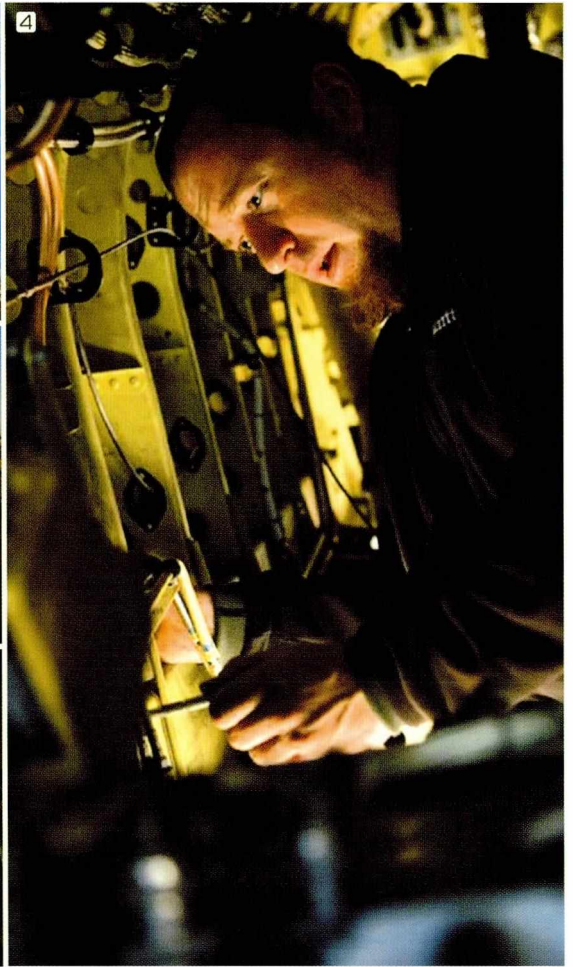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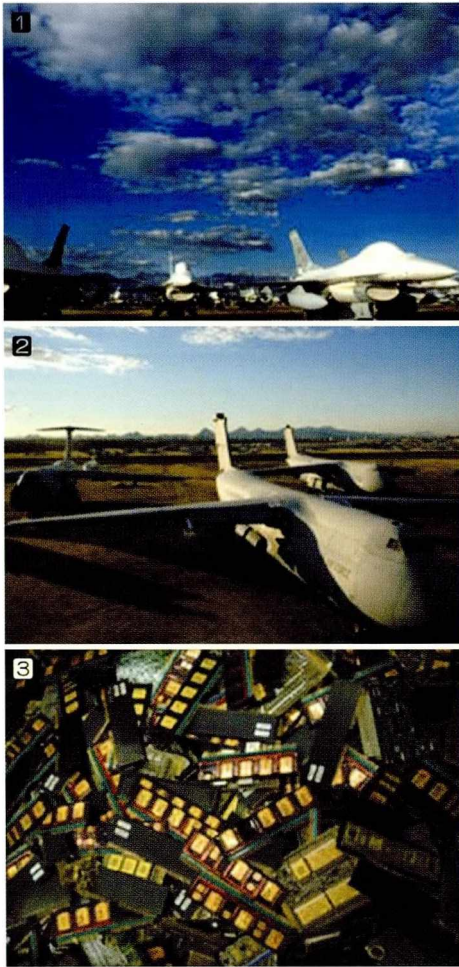
혹자는 결국에는 훈련 임무 도중 격추될 항공기들에 돈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비웃을 수도 있다고 Wendell 중령은 말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점은 이렇게 재검사된 항공기들이 조종사 및 승무원들에게 소중한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우수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개량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실제적인 항공기 대 항공기 훈련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그는 말하였다.

색다른 역할

공군은 단지 훈련 목적으로만 항공기를 재생하지는 않는다. 일부 전력은 다시 미 공군, 혹은 동맹국 공군 자산으로 운용된다. 전대장 Tony Panek 대령은 “고객들은 만족한다. 일부 국가들은 본 전대로부터 인수받는 항공기가 자국에서 운용하는 항공기보다 더 우수한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보관장에 있는 모든 항공기들이 다시 나는 것은

1 보존된 F-16 Fighting Falcon기가 애리조나 창공 아래에 정렬되어 있다. 보관 지역 방문자들은 걸어 다니면서 4,4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볼 수 있으며, 바람에 의해 항공기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2** Davis-Monthan의 보관지역으로 퇴역한 이 C-5 Galaxy 수송기 편대는 다시 비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비사들은 부속품을 회수하여 공군의 노후화되는 수송기들이 지속 비행하도록 할 것이다. **3** 다양한 전투기로부터 제거된 회로들로 가득한 이 통과 같은 일부 부품은 단순히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된다. 정비사들은 이것들을 폐기하는 것이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4** Matthew Hamblin이 A-10 Thunderbolt II의 꼬리 부분 좁은 공간에 벨 크랭크를 설치 중이다. 정비사들은 지상공격 전투기들의 부품을 갱신하여 수명을 두 배로 늘리고 대테러 전쟁의 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니다. 항공기 도착 및 입장 절차 후, 항공기는 4개의 보관 코드 - 1,000, 2,000, 3,000, 혹은 4,000 - 중 하나를 부여 받아 운명이 결정된다. 1,000급 항공기는 부품회수를 할 수 없고 다시 비행할 수 있다. 2,000급 항공기는 부품회수용이다. 3,000급 항공기는 임시 보관용으로 비행 준비를 유지한다. 4,000급 항공기는 처분용이나 먼저 부품들이 회수된다.

하지만 Panek 대령은 다시 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항공기들의 공군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성이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공군에서 운용 중인 자산 중 다수의 항공기는 너무나도 오래되어 부품들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본 전대가 이러한 부품들의 유일한 공급자이다.”라고 대령은 말하였다.

이제 56돌을 맞이한 B-52 Stratofortress 및 52년된 KC-135 Stratotanker는 대테러 전쟁에 있어서 공군의 주요 운용자산이자 부품 회수용 항공기이다. 이러한 이유로 밀봉 절차가 중요한 것이다. 저장고가 없는 상황에서 부품들은

항공기 내에 보관된다.

유타주 Hill 공군기지 Ogden 항공 군수본부 예하 309 정비단 소속인 이 전대는 국방부 및 다수의 외국 정부로부터 부품을 요청받는다. 사막에 주어진 70종 항공기 중 다수 기종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정비사들은 재고 항공기들을 점검하여 부속품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절차가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전대는 모든 항공기 및 부품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한다. 전대장은 임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해외에서 주둔하며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는 친구를 도와준 것이라고 한다. 친구 대대 소속 C-130 항공기가 불시착을 성공적으로 하였으나 이때 랜딩 기어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수송기를 수리하기 위해 정비사들은 쉽게 찾을 수 없는 부속품들이 필요하였다. 기계공들은 재고에서 이러한 부속품들을 찾을 수 없었다.

전대장의 친구는 전화를 하여 보관지역에 필요한 부속품이 있는지 물었다. 역시나 주어진 C-130이 필요한 부품들이

있었다. 전대 정비사들은 이 부품을 빼내어 24시간 이내로 보낼 수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전대가 공군 임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주 임무이자 존재 이유는 전투수행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전대장은 말했다.

색다른 여정

일부 항공기는 보관 목적이 아닌, 필요한 보수 작업을 통해 전투를 지속 수행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이 중 한 기종은 A-10 Thunderbolt II로써, 1970년도 중반에 처음으로 Davis-Monthan 기지에서 공군에 소개되었다. 30년 후인 지금에도 임무를 수행하는 이 항공기는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 수행하는 근접항공지원 임무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되었고, 비행시간이 급속하게 오르게 되었다고 전대장은 말한다.

하지만 전대는 Thunderbolt기를 위한 대책이 있다. 바로 수명 연장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항공기의 수명을 두 배로 늘린다. 이 절차는 날개를 떼 후 조종석 및 날개 내외의 취약 부분에 대한 예방 수리 작업을 하는 것이다. 항공기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데에는 160일이 걸린다. 개장된 항공기의 비행 수명은 10,000시간에서 20,000시간으로 증가한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은 A-10 자산을 사실상 두 배로 늘렸다고 Earl Wade 기타 항공기 편대장이 말하였다. 그는 그의 정비사들이 전투수행원들의 지원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저녁 뉴스에서 전쟁 상

황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본다. 이것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전대 요원들이 그들의 작업장을 노후된 항공기 부품이 다 회수된 후 죽으러 가는 “폐차장”이라고 부르며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품이 다 회수되면 항공기는 폐기 처분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폐기 편대장 Gregory Barnes는 이동 절차의 최종 단계인 이 부분을 보는 방문객들은 이따금 감정이 복받쳐 오른다고 한다. “정비팀장이나 모든 방문객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아주 슬플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정비사들은 “직업 인생을 이러한 항공기들을 보수하고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데 바친다.”고 한다.

항공기 파괴의 목격자 중 일부는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방문객들이 이동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운 후에는 “파괴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관 시설의 임무는 커져 왔다. 더이상 항공기를 보관하고 유지만 하는 곳이 아니다. 항공기 재복구 절차는 이제 큰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전대의 임무인 창정비, 부품 회수 및 항공기 폐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Hookstra 씨는 “이것은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서 국방부, 공군, 그리고 동맹국 공군의 비용을 상당히 절감한다.”고 하며 “항공기를 2~3,000만 달러에 구매하는 대신 우리가 150만 달러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감된 비용은 바로 전쟁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Hampton Garcia가 F-16 Fighting Falcon 항공기 한 대를 Spraylat 보호용 덮개로 덮어 보관 지역에서의 항공기의 장기 보존을 준비하고 있다.





압박한 비행을 마치고 경례하고 있는
공군홍보대사 고주원·한효주 씨

「공군홍보대사 하늘 날다」 그날의 기록

Two Angels Documents of The Flying Day

원고정리 편집실 사진 이민경·김효정 | 엠픽스 스튜디오 공중촬영 중사 편보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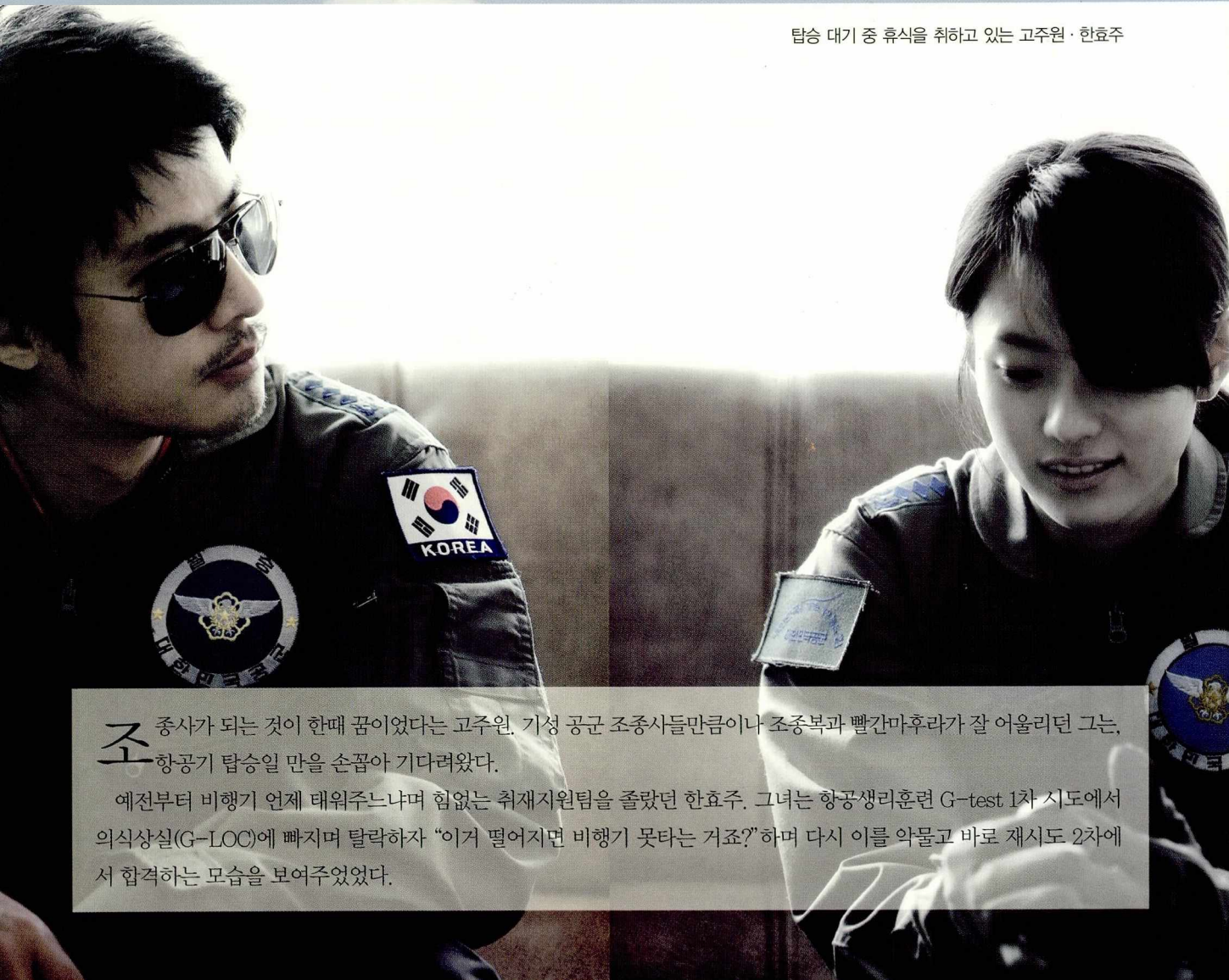
지난 5월 1일, 공군홍보대사 고주원·한효주 씨가 빨간마후라를 목에 걸고 하늘을 날았다. 탑승 기종은 KA-1. 그들의 항공기 탑승은 강한 공군의 기상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다. 탑승 전 브리핑부터 착륙 후 인터뷰까지 그 설렘의 현장을 「공군」에서 담아보았다.



이륙 전 브리핑을 받고 있는 공군홍보대



탐승 대기 중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고주원 · 한효주



조종사가 되는 것이 한때 꿈이었다는 고주원. 기성 공군 조종사들만큼이나 조종복과 빨간마후라가 잘 어울리던 그는, 항공기 탑승일 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예전부터 비행기 언제 태워주느냐며 힘없는 취재지원팀을 졸랐던 한효주. 그녀는 항공생리훈련 G-test 1차 시도에서 의식상실(G-LOC)에 빠지며 탈락하자 “이거 떨어지면 비행기 못타는 거죠?”하며 다시 이를 악물고 바로 재시도 2차에서 합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탑승 직전 긴장한 표정의 한효주



탑승 전 연예가중계 리포터와 인터뷰 중인 고주원

비행당일, 브리핑 내내 그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이었다. 하나라도 놓치면 작은 사고라도 일으킬세라, 행여 공군전력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비행관련 자료를 들춰보며 열심히 공부했다. 곧이어 비행장구를 착용하고 활주로로 나서는 그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좌석에 앉아서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며 하나하나 물어가며 꼼꼼하게 이륙을 준비했다.

드디어 항공기가 이글루를 나섰고 이륙을 위해 라스트찬스에 섰다. 이륙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KA-1의 기체가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민간항공기에서 볼 수 있는 긴 TAXIING의 장면은 볼 수 없다는 게 동행한 정비사의 설명이다. 교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비행단 타워에는 그들의 긴장된 대화가 들려왔다. 괜찮냐, 그쪽은 어떠냐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고주원과 한효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 좋아요!” 얼마 후 연예가중계 리포터가 기분을 묻자 두 홍보대사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2008 June



태안반도, 독립기념관 상공 등을 비행한 뒤 1시간 만에 그들은 무사히 활주로로 돌아왔다. 완벽한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인솔한 조종사들에게 감사하는 한편 그들의 비행을 도와 준 부대 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친필사인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늘을 나는 두 선남선녀의 모습을 통해 나의 꿈도 하늘에 띄워 보자. ㉔

Hot SKETCH

참모총장, 독도함 '무궁화회의' 특강

참모총장은 5월 28일, 해군 2함대 사령부 독도함에서 개최된 '무궁화회의'에 참석하여 '선진정예 강군 육성을 위한 리더와 리더십'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하였다. 이날 참모총장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6대 역할 및 10대 행동강령'에 대해 설명하고, 현 시점에서 시대와 상황이 요구하는 '창조적 실용'과 '정예화된 선진 강군' 구현을 위한 리더와 리더십 배양에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서해안사격장 순시

참모총장은 5월 21일, 서해안사격장을 순시하고 근무장병들을 격려하였다. 참모총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공군의 전투력은 조종사들의 사격기량에 달려있는 만큼, 전 요원들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근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최초 우주인 '이소연' 씨 공군 명예조종사 위촉식
참모총장은 5월 28일,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씨를 공군본부로 초청하여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전달하고 공군 명예조종사로 위촉했다. 이 자리에서 참모총장은 이소연 씨의 건강상태에 관심을 표명하며, "성공적인 임무완수를 축하하고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자 공군 명예조종사로서 항공우주시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하늘과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가인권위원장 접견

참모총장은 5월 14일, '제45회 법의 날'을 기념하여 공군 법무병과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차 공군본부를 방문한 국가인권위원장(안경환)을 접견하고, 공통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참모총장은 "인권과 군 기강은 병립할 수 있다"는 인권위원장의 의견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향후 우리 공군이 "인권과 군 기강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보다 강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휘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공군본부 춘계 체육대회

참모총장은 5월 7일, 공군본부 춘계 체육대회 개막식을 주관하고 축구경기 시축을 한 다음, 장병들의 투지 넘치는 경기를 관전하였다. 참모총장은 이날 격려말씀을 통해 "금일의 체육대회는 우리가 거둔 그간의 성과를 자축하는 동시에 공군본부 지역 전 장병 및 군무원들이 동료애와 친밀감을 더욱 돈독히 하며 情을 나누는 즐거운 자리인 만큼 오늘 하루는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하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그간 공군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군본부지역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 「2008 보라매공원 재탄생축제」 참석

참모총장은 5월 5일 어린이날, 「2008 보라매공원 재탄생축제」에 참석하였다. 이날 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보라매공원에 공군과의 오랜 인연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에어파크가 조성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보라매공원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세계적인 테마공원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였다.

* 보라매공원은 1958년부터 1985년까지 '공군사관학교'가 위치했던 곳으로 공군은 이곳에서 2,8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 신임 국방과학연구소장 접견

참모총장은 5월 20일, 신임 인사차 공군본부를 예방한 박창규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을 접견하고 양 기관간 협력 발전방안 및 공통 관심사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AIR FORCE NEWS

공군은 지금



◎ 제1방공포병여단, 차량 운행 500만km 무사고 기록 수립

5월 7일, 1여단은 차량 운행 500만km 무사고 기록 달성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여단장 이하 지휘관·참모와 수송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산악지형과 장거리 운행이 대부분인 방공포병 부대에서의 대기록 수립을 축하했다. 500만km는 지구 둘레 124바퀴, 무려 서울-부산간 5,700여 회 왕복에 준하는 거리이다.



◎ 공군 사관후보장교회, 제16전투비행단 인근 이웃에 에어컨 기증

공군 사관후보장교회(ACRO) 산하 공군사랑회(회장 윤성로)가 5월 29일, 제16전투비행단 인근 이웃에 에어컨을 기증·설치하는 행사를 가졌다. 공군 사관후보장교회는 개포면과 유천면에 각각 에어컨 1대씩을 기증하였다.



◎ 공군발전협회, 청소년 공군체험행사

공군발전협회(회장 한주석)는 협회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협회가 주관하고 (사)청소년 희망연대가 협력하는 “청소년 공군체험행사”를 2008년도에는 5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월 5차 이상 약 1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항공사상 양양 및 공군을 홍보할 목적으로 개최하는 최초의 행사로써 5월 30일 실시한 행사는 (사)청소년 희망연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지역별 교육청에서 추천한 모범초등학교생과 인술교사 등 약 300여 명이 참가하였다.

2008 June



◎ 군수사령부, 항공기 부품전시회 개최

- 항공기 부품 국산화를 위한 600여 대상 품목 전시
- 항공분야 국내 유망 중소기업 1,000여 업체 참가
- 대구시청과 공조체계 구축, 지역 내 유망업체 참여 유도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항공기 및 미사일 부품의 국산화와 정비능력 개발을 위한 견본부품 전시회가 5월 28일부터 이틀간 대구시 성서 공단 내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공군의 주력기종으로 활약하고 있는 KF-16 전투기와 F-4, F-5 및 각종 수송기에 사용되고 있는 600여 개 부품에 대한 국산화 추진여부를 참가업체들과 군수사령부가 함께 협의했다. 이번엔 전시된 견본 부품 600여 종은 각종 수입 부품을 비롯하여, 수입대체 효과나 자체개발을 통해 기술파급 효과가 높은 품목들로 선정되었으며, 이 밖에도 부품의 장기간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 정비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60여 개 대상 품목도 함께 전시되었다.

군수사령관은 "항공기 부품과 수리부속들은 간단하고 사소한 부품이라도 매우 고가인 것이 특징이다.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을 국내기술로 자체 개발함으로써 수입대체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업체들의 기술역량을 높이는 데 이번 전시회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83년부터 시작된 항공무기체계 부품 국내 개발을 위한 노력의 결과, 공군 전투기의 엔진, 무장 계통, 레이더 장비 등의 760여 핵심 부품들이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 완료되었거나 개발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이번 부품전시회는 과거 부대 내의 행사로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대구시청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성서공단 내의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 실용적 맞춤형 전시회로 추진함으로써, 대구 지역은 물론 항공 관련 국내업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IR FORCE NEWS

공군은 지금



◎ 복지군무지원단, 서울시 “성년의 날” 행사 참관

복지군무지원단에서는 5월 19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제36회 “성년의 날” 행사에 참여하였다. 서울특별시와 성군관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이번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성년이 된 복지단 장병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전통 성년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교육사령부, 스승의 날 맞아 「교관의 날」 행사 개최

교육사령부에서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항공우주시대 정예공군인 양성의 주체인 교관 및 훈육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교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기본군사훈련단을 비롯한 각 특기 학교 교관 및 훈육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한 뒤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이기석 연구원 초청 특강과 교관과 교육생이 함께하는 단체운동 순으로 진행되었다.



◎ 제3훈련비행단, 2008년도 하계 안전회의

5월 29일, 제3훈련비행단 와룡문화관에서 전 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2008년도 하계 안전회의를 실시하였다. 감찰실 주관으로 실시한 하계 안전회의는 하절기 기상특성, 지상 사고 예방, 여름철 건강 관리 등으로 진행해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시간이었다. 한편, 단장은 훈사에서 참모총장 서신 소개 및 단장 복무계획을 장병들에게 전하며 “규정과 절차의 생활화를 통하여 新안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군수사령부, 경북대생에게 6시그마 경영기법 전수

경북대학교 공과대학과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대학생 30여명은 5월 6일부터 군수사 병영탐방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들 대학생들은 <올바른 인재상과 6시그마 경영문화>를 주제로 학기 중 3일에 걸쳐 총 12시간 동안 이어지는 야간학습과 8시간짜리 경영혁신 현장학습, 일명 ‘Field Trip(병영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 프로그램은 대구지역 유일의 품질명장인 군수사령부 장태환 주사의 특강과 6시그마를 창정비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는 군수사령부에 대한 1일 현장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 June

◎ 항공기 부품확보에 민간업체 역량 심분 활용한다

- 군수사, 긴급소요부품 확보 위해 사급(社給)조달 적극 활용
- 부품확보를 위한 전방위 노력으로 운영률 향상 및 예산절감
- 군수사 정창교 서기관, 사급조달 방식으로 73만 달러 절감

군수사령부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부품을 확보하여 계약업체에 지원하는 관급(官給) 조달방식과는 별도로 민간 정비업체의 자체 부품획득 방식인 사급(社給) 조달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항공기 운영률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수사령부는 금년 1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사급(社給)조달을 통해 총 73만 달러에 이르는 공군예산을 절감했다고 5월 15일 밝혔다. 특히 군수사령부는 관급 조달에 비해 부품 구매단가가 저렴한 경우, 사급조달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적정 항공기 운영률 유지를 위해 부품 획득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극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73만 달러의 예산 절감과는 별도로 관급 조달시 최저 90일에서 최고 720일 소요되었던 회소부품 획득 기간을 사급조달을 통해 최저 1일부터 최고 320일 이내에 부품을 획득할 수 있도록 납품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수사령부 생산관리처 정창교 서기관(46세)은 “사급조달을 통한 항공기 부품 확보는 적절한 항공기 운영률 유지를 위해 신속성 있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사급조달이 항상 저렴하지는 않지만, 특정 부품의 경우 민간업체의 구매 단가가 관급에 비해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여 관급과 사급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수사령부는 사급조달을 통한 부품구매를 보다 확대 적용함으로써 대한항공, 삼성테크윈, LG넥스원 등 민영창에서 필요로 하는 회소부품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다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확보하여 민영 정비창의 생산성 향상과 항공기 운영률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군수사령부는 이 같은 사급(社給) 조달의 활성화를 위해 ‘민영창 정비 관리지침 및 절차’에 대한 규정 개정을 5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민영창의 사급구매 확대와 부품확보시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을 독려할 방침이다.



보다 빨리!! 보다 싼 가격에!!! 군수사령부 군수관리단 정창교 서기관은 지난 4월 말까지 사급조달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73만 달러어치의 항공기 부품구입 예산을 절감했다.



전술비행은 생존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



글 중령 김원수 | 제58항공수송단

지난해 다이만부대의 비행대대장으로 보임되면서 내가 가진 첫 번째 마음가짐은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자’는 것이었다. 이라크 전구 내에서 적대세력의 공격이 상존하는 가운데 안전하고도 완벽한 공수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무 비행장에서의 이·착륙간 시행되는 전술비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끼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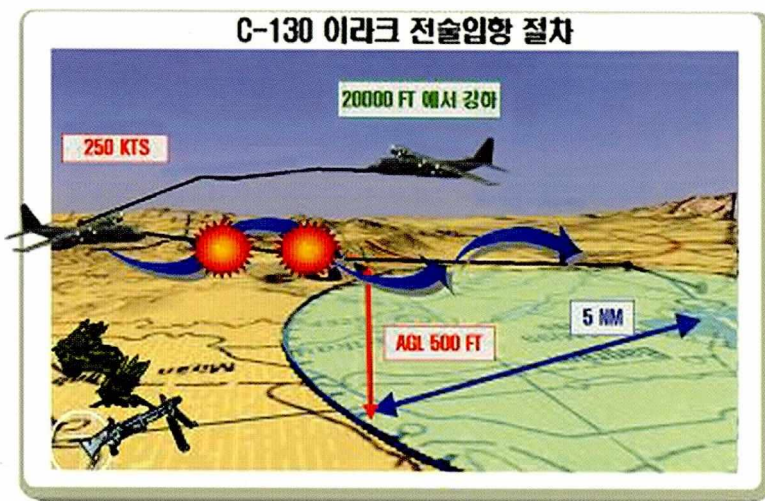
다이만부대는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사단에 대한 병참공수를 포함한 항공수송지원을 주 임무로 하고 있으며, 2004년 10월 파병 이후 현재까지 이라크 내 주요 비행장 11개 기지 중 아르빌, 바그다드 등 6개 기지를 대상으로 2,200회 전장을 출격하는 동안 단 한건의 임무실패 없이 인원 약 41,000명, 화물 약 4,000여 톤을 공수하였다.

이러한 이라크 내의 공수임무가 한국에서의 공수임무와 분명히 다른 점은 다양한 무기를 운용하며 도처에서 활동 중인 적대세력에 의한 지대공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비행장에서 전술 입·출항 기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격 사례와 교훈

파병 이후 최근까지 집계된 이라크 내 적대세력의 위협은 지대공 공격이 약 3,600건, 비행장 공격은 약 2,400건이다. 이 중 C-130이 직접 피격된 사례는 총 3건으로 1대(영국)는 대공포 사격에 의한 추락, 1대(미국)는 지대공 미사일에 의한 비상착륙, 1대(호주)는 소총사격에 피탄되어 방탄복을 착용하지 않은 승객 1명이 사망한 경우이다.

이들의 사례 중 우리가 주목하며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지난 2005년 1월 30일에 적대세력의 대공포 공격에 의해 영국 C-130 항공기가 추락한 사고이다. 추락한 영국 C-130 항공기는 바그다드를 이륙 후, 북서쪽 70km에



위치한 발라드 비행장으로 가면서 이라크 전구내 표준 전술 출항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저고도 직진비행을 하다가 항로 중간지점에서 적의 대공포에 피격되어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승무원 전원이 순직한 것이다.

안전한 전술비행 절차준수

다이만부대에서는 영국군 C-130과 같은 사례가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고, 생존성 향상과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술비행을 철저히하고도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라크 내 비행장에 대한 전술비행의 목적은 대공미사일(SAM), 대공포(AAA) 및 소화기 등 적대세력의 지대공 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노출 및 조준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되며, 모든 다국적군 수송기들도 이 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임무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한 전술 입·출항은 비행장 약

50km 전에 6,000~7,000m의 항로고도에서 450km(250Kts)로 고속 급강하하여 비행장 약 10km 전에 지표면으로부터 약 150m에 도달 후, 그 고도와 속도를 유지하여 비행장까지 진입하는 절차이며, 착륙 직전까지 좌우로 지속적인 선회비행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대공회피 기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륙 후의 전술출항은 전술입항의 역순으로 기동을 실시하면서 신속하게 안전고도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이라크 내 전술 입·출항 절차는 한국공군 C-130뿐만 아니라 다국적군으로 파병 중인 미국, 일본, 영국 등의 모든 수송기들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하늘과 땅이 교차되는 전술비행의 회피기동이 임무 시마다 승무원들을 긴장하게 만들지만, 대한민국과 공군이 다이만부대에 맡겨준 소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㉔



보리밭 위의 명가수 종다리



글·사진 **준위 현동선** |
제20전투비행단 조류담당

현동선 준위는 조류의 생태를 파악하여 무작정 죽이기만 했던 조류를 살리는 방법으로 유도한 비행단의 조류담당자다.

6월이 되면 종다리와 관련되어 생각나는 일이 있다. 고향인 춘천은 삼면이 호수로 되어 있어서 강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아름다운 자갈이 지천으로 깔려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작고 예쁜 조약돌을 몇 개 골라서 학교에 가지고 가곤 하였는데 짝꿍인 여학생은 그것으로 공기놀이를 하며 매우 좋아했다.

당시에는 강물이 맑아서 물 속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다 보였다. 깊이가 낮은 물가에선 돌 밑에 숨어있는 물고기를 큰 돌로 내리쳐 놀라게 하여 잡기도 하였고, 다슬기를 잡아서 집에 가지고 가면 어머니가 된장을 넣고 맛있게 끓여주시곤 하셨다.

강가에 자갈들이 모여 있는 곳은 많은 새들의 번식 장소였다. 주로 꼬마물떼새와 종다리들이었다. 꼬마물떼새의 알은 자갈과 거의 비슷하여 자갈인지 새알인지 구분이 어려웠으며, 그 이웃에 살고 있는 종다리의 둥지 역시 식별이 매우 어려웠다. 강가에 사는 종다리의 둥지는 자갈이 듬성듬성 있으며 잡초들이 섞여있는 곳을 선택하여 만들고 둥지 주변에 풀이 자라면 풀을 둥지 위로 계속 잡아당겨 위에서 내려다보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매우 어려웠다. 종다리의 둥지는 대부분 주변 지형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었는데

비가 내릴 경우 둥지가 물속에 잠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지형으로 보였다.

땅 위에 둥지를 짓는 새들은 대부분 위장이 잘되어 있으며 알도 주변 자갈과 거의 비슷하여 걸어가다 실수로 밟더라도 느낌이 없다. 주변 자갈과 흡사한 마른 풀 색의 알은 주변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하며 위장색을 가지고 태어난 종다리의 유조는 알에서 깨어난 지 9일에서 10일 후면 둥지를 떠하는데 그것은 높은 나무에 둥지를 짓는 까치나 피꼬리리나 달리 천적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처에 너구리, 족제비, 쥐, 그리고 뱀들과 같은 동물이 모두 땅에 둥지를 짓는 새의 어린 새끼와 알들을 즐겨 먹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위장이 잘 되어있는 종다리의 둥지와, 둥지를 떠난 후 이곳저곳에 숨어있는 종다리의 유조를 발견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바위 위에 앉아서 노래를 하며 주변을 살피고 있는 수컷 종달새

강가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우연히 풀 속에 은밀하게 지어 진 종다리 둥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둥지 속에는 갓 태어난 어린 종다리 새끼가 어미가 온 줄 알고 머리보다 큰 입을 벌리고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처음 본 종다리 새끼의 얼굴에는 입만 있는 줄 알았다. 그런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매일 매일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 몰래 강가에 있는 종다리 둥지를 관찰하러 달려가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가 몹시 내렸다. 이를 동안 내린 비는 그칠 줄 몰랐고 나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커가던 종다리의 어린 새끼들이 너무도 궁금하였다. 이 빗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강물이 범람할 지경인데 둥지는 물 속에 잠기지는 않았는지? 별별 생각이 다 들어서 밤새 뒤척이며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다음 날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강가로 달려갔다.

강가에는 강물이 불어나서 종다리의 둥지가 있던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종다리의 둥지가 있던 모든 곳은 물에 잠겨서 주변의 형태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 허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리려 하는데 어디선가 종다리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세상에! 강물이 넘실대며 물에 잠기려고 하는 자갈 더미가 있었는데 그곳에 종다리의 어린 새끼들 네 마리가 모여 있는 것이었다. 몇 분 있으면 강물에 휩쓸려갈 듯한 어린 새끼들을 향하여 어미새는 안타까운 듯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며 큰 소리로 울어대고 있었다. 아직 어려서 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물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에는 벅찼던 모양이었다.

강물은 계속 차올라 종다리의 어린 새끼들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상태였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지를 걷고 들어가 종다리 새끼들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모아서 강둑으로 올라왔다. 양손에 따뜻한 종다리 새끼의 체온이 느껴졌다. 그런데 그때부터 고민이 생겼다. 이 어린 새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다. 이곳 강둑에다 놓고 오면(?) 과연 어미새가 알고 새끼들을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 어미 종다리는 새끼들이 물에 떠내려갔다고 생각을 했는지 주변에 보이지 않고 멀리서 애타게 지저귀는 소리만 자그맣게 들릴 뿐이었다.



종달새의 둥지와 알(둥지의 재료와 알이 주변 색과 비슷하여 발견이 어렵다.)



둥지로 들어가기 전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고 있다.



알을 품고 있는 어미 종달새



둥지 안에 부화된 어린 새끼가 먹이를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다.

종다리와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집에 가져온 후 정성을 다해서 먹이를 주었고 학교에 갈 때면 “왜 이런 어린 새를 집으로 가지고 왔냐”고 핀잔하시던 어머니를 설득해서 맡기곤 했다. 며칠 동안 정성을 다했더니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났고 일주일 후에는 각자 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곤충을 잡기도 하며 홀로서기를 하였다.

집 근처에 넓은 보리밭이 있었는데 매년 봄마다 늘 그곳에서는 종다리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렸다. 종다리의 어린 새끼들도 언제나 보리밭 속에서 생활하였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네 마리의 종다리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곳저곳에서 날아와 나의 발치에서 재롱을 부리곤 하였다.

위장 깃과 웅크림으로 자기 방어

종다리는 몸길이 약 17cm, 붉은 갈색 바탕에 거무스름한 가로 무늬에 긴 뒷머리 깃이 마치 뿔처럼 보이는 종다리는 농업이 주업이던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새보다도 친근하던 새였다.

영국에서 일본에 이르기까지 북위 30도 이북의 유라시아 대륙 전역과 북미지역에 몽골 종다리, 쇠종다리, 뿔종다리, 왕종다리, 북방종다리 등 170여 종이 분포하는 데 4~7월에 회백색 얼룩무늬 알을 3~6개 낳아 품은 지 11~12일 만에 부화하며, 알에서 깨어난 지 9~10일 만에 둥지를 떠나서 스스로 날기까지 약 10여 일간 각기 30~50m의 거리를 두고 생활한다. 둥지를 나오긴 했지만 날 수가 없어서 한곳에 모여 있으면 천적에 의해서 모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부지런함과 함께 만물의 어머니인 대자연은 포식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자위 능력을 부여하셨다. 종다리 새끼들은 서식지 주위의 흙빛깔과 비슷한 깃털 옷을 입고 어미새로부터 빠르르 빠르르 하는 경고신호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짹짹 웅크려 포식자의 눈을 피하는 데 이미 둥지를 떠난 녀석들도 경고신호가 있자마자 풀 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리기 때문에 종다리의 새끼들은 땅위에서 번식을 하고 성장을 하면서도 비교적 생존율이 높은 편이다.

농약 때문에 사라져가는 귀한 생명

원래 종다리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번식하던 흔한 텃새였다. 그러나 최근 다른 희귀조의 경우처럼 보기 드문 새가 되고 말

았다. 열병처럼 이 땅을 휩쓴 개발 열풍이 보리밭과 밀밭을 삼켜버리고, 농약을 많이 사용하여 종다리들이 죽어간 탓이다.

미국의 저명한 여류 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은 봄이 와도 종다리 지저귀지 않는 ‘침묵의 봄’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재앙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불행하게도 그녀의 예언은 현실로 드러나 종다리들이 하나 둘 우리 곁을 떠났고 시골에서 보리밭 보기도 어렵거니와 보리밭 위에서 노래하는 종다리의 노래 소리는 거의 들을 수가 없다. 아무런 생각 없이 농작물에 퍼붓는 농약의 독성으로 먹이가 물로 씻은 듯이 사라지고, 광기서린 공업화와 도시화로 삶의 터전인 농경지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시나브로 악화되는 ‘삶의 질’이 우리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니 자업자득으로 돌리기에 너무나 끔찍한 환란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종다리들이 활주로 주변의 잔디밭에 둥지를 튼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잘 관리된 초지에 농약에 중독되지 않은 벌레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공군기지나 공항에서도 종다리는 반가운 새가 아니다. 둥지 상공에 높이 날아 올라 활공하면서 노래하는 습관으로 인해 항공기에 충돌할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주변 보리밭으로 인위적 이동

우리기지에서 종다리가 번식하기 전 활주로 주변 잔디면을 롤러 장비로 고르게 정리를 하여 종다리들이 서식하기에 좋지 않은 조건을 만든다. 처음에는 다시 둥지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몇 번 반복하면 기지 밖의 보리밭으로 서식 장소를 옮긴다. 서산기지와 가까운 곳에는 다행히 보리밭이 많다. 현대영농에서 관리하는 농경지에 보리를 많이 심고 가축 개량조합의 초지에서도 상당히 넓은 지역에 보리를 심는다. 종다리들이 떠난 활주로 상공에서 아침 일찍 종다리의 지저귀는 소리를 못 듣게 되어 아쉽기는 하지만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충돌의 요소가 제거되어 한편 다행으로 여길 수밖에...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며 농부의 손길을 기다릴 때 황금빛 보리밭 위에서는 청아한 종다리의 목청이 들려온다. 활주로에서 떠난 종다리가 주변 보리밭 위에서 제 소임을 다하며 창공을 맴돌 때 우리는 은빛 날개를 가진 전투기의 힘찬 심장 고동에 함성을 보낸다. 

6월의 공군 역사

자료정리 군역사기록관리단

- | | | | |
|--------|-------------------------|--------|-------------------------------|
| 6월 1일 | ● 항공안전관리단 창설(1955, 진주) | 6월 19일 | ● HH-32(Ka-32A) 헬기도입(2004) |
| 6월 3일 | ● 흑산도 출현 무장간첩선 격침(1969) | 6월 20일 | ● 공군 최초의 제트항공기 F-86F 도입(1955) |
| 6월 7일 | ● T-37 훈련기 도입(1973) | 6월 25일 | ● 6·25 전쟁 발발(1950) |
| 6월 13일 | ● RF-5A 정찰기 도입(1972) | 6월 29일 | ● F-51 무스탕항공기 퇴역(1957) |
| 6월 15일 | ● C-123 수송기 도입(1973) | | |

6·25 전쟁 발발(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어둠을 깨뜨리고 전면적인 남침을 개시하였다. 국군은 조국의 안위를 위하여 용감히 분전 하였으나 애초에 탱크와 전투기라곤 단 한대도 없었던 우리 군은 소련제 T-34 탱크와 야크(Yak) 전투기로 무장한 적군에 밀리기 시작하였다.

개전 초기 단 한대의 전투기도 보유하지 못했던 우리 공군은 L-4/5¹⁾, T-6(진국기) 등 가용한 항공기를 총동원하여 적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수류탄과 폭탄을 가슴에 품고 출격을 감행하였으나 전투기의 빈자리는 너무나 큰 것이었다. 이처럼 모든 측면에서 적군과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필승의 신념하에 하나된 우리 공군장병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최용덕 장군 지휘하에 김포지구경비사령부를 조직하여 북한군과 일전을 각오하기도 하였으며, 비무장의 정항공기로 위협을 무릅쓰고 정찰비행, 연락업무 등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등 항공구국을 향한 공군의 열정과 의지를 대내·외에 각인시켰다.

이후 미군으로부터 F-51 전투기를 인수한 우리 공군은 승호리 철교폭파, 평양대폭격, 351고지 전투지원작전 등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을 수립하는 한편 L-4, L-5, T-6 항공기로는 정찰 및 연락임무를 수행하여 지상군 작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우리 공군은 조국에 대한 충정을 연료삼아 하늘로 날아올랐던 선배장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필승공군의 뿌리를 굳건히 다져왔으며 이제는 하늘을 넘어 우주를 향한 원대한 꿈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아군의 공격으로 고철이 되어버린 북한군 T-34 탱크

HH-32(Ka-32A) 헬기도입(2004년 6월 19일)

HH-32 헬기는 러시아 경협 차관에 대한 현물상환계획(불금 2차사업)에 따라 도입한 기종으로 최대탑승인원 18명(조종사 2명 포함), 화물탑재능력 5톤, 최대 4시간 30분의 체공이 가능하며 전천후 항법장치와 해상 수색레이더를 장비한 다목적 탐색구조용 헬기이다.

러시아 KumAP社에서 제작한 HH-32 헬기의 원명칭은 Ka-32A로서 우리 공군은 타 기관에서 운영 중인 Ka-32(산불진화 및 화물공수용)와 혼동을 방지하고 항공기 호칭시 적·야 식별을 위하여 일련번호(32)는 기존명칭과 동일하게 사용하되, 개량임무부호와 기본임무부호는 각각 Search & Rescue를 의미하는 H와 헬기의 기본임무를 의미하는 H를 부여하여 HH-32로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다.

우리 공군은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HH-32 헬기를 도입하여 전·평시 탐색구조 및 전술공수 임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235비행대대)에서 운영하고 있다. ㉔



HH-32 헬기의 도입으로 우리 공군의 탐색구조 전력은 다양한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사진은 수상구조 훈련 중인 HH-32).

1) 우리 공군의 L-4/5 항공기는 전쟁 전부터 공비토벌 및 여순반란 진압작전 등에서 항공정찰, 전단살포, 연락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내 목숨 버려도 조종사는 구한다!

전사^{戰士}들의 수호전사^{守護戰士}, 항공구조대(Search and Rescue)

INTERVIEW

원고정의 편집실 사진 중사 편보현





“Behind Enemy Lines(2001)”(국내 개봉명은 “에너미 라인스”)는 보스니아 내전 당시 피격되었던 美 F-18 전투기 조종사를 구출하는 과정을 그린 전쟁영화로, 개봉 당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추락한 조종사를 구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제6탐색구조전대의 능력도 함께 주목을 받아, 기획 영상프로그램이나 웹 블로그를 통해 그들의 임무하는 모습과 자료가 공개되어 그들의 존재는 더 이상 베일에 가려진 신비의 존재들은 아니다. 각종 재난 현장에도 출동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도 하는 그들은 최강의 Air Force Warrior인 조종사들을 보호하는 守護戰士의 역할을 수행한다. 실전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적진 한 가운데에 고립된 조종사를 구출해야 하는 그들은 혹독한 훈련을 통해 은밀한 비상을 준비한다.

하지만 공군 항공구조대를 소개하는 많은 웹 사이트에는 풀리지 않은 궁금증을 하소연 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번 기회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Q 적지 한 가운데 고립된 조종사를 구조하는데 얼마나 많은 전력이 투입되나?

A 개별적인 상황(전장여건, 자연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8명의 구조사, 2대의 구조헬기, 암호하기 위한 6대의 전투기, 전반적인 통제를 위한 1대의 공중통제기 등으로 구성된 팀이 움직인다.

Q 조종사 한 명을 위해 그렇게 많은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야 하는가?

A 모르는 말씀!! 60억원 이상의 양성비를 제외하고라도 일정한 수준의 전투 조종사를 키워내는 것은 최강의 전투기 수십 대와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전술적인 능력, 항공작전 전체에 대한 정밀한 군사지식 등 조종사가 일선에 담고 있는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또한 적진에 고립된 조종사 구출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군의 사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Q 항공구조사들 훈련사진을 보면 너무 눈에 잘 띄는 자주색 베레모를 쓰고 나오는데 말이 되나?

A 물론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자주색 베레모를 착용하고 다니지는 않는다. 하지만 조종사가 구조사를 빨리 식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조우하는 순간까지 베레모를 벗지 않는다. 적의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하리라는 생각을 버려라. 적과의 교전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들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아무런 상관 없다. 다만 조종사를 이끌고 도피탈출을 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Q 훈련하는 구조사들은 별다른 무장이나 장비가 없어 보이는데 정말 괜찮은 건가?

A 항공구조사가 사용하는 무장은 개인 기본화기인 K-2 소총과 대검 등 최소 수준이다. 동일한 질문을 직접 구조사에게 해 보았는데, 그의 답변은 간단했다. “교전이 이뤄지지 않겠지만, 만약 교전이 이뤄지고 무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적의 무기를 뺏어 사용하면 된다.” 강인한 체력에 고강도의 특수훈련을 소화해 낸 그들에게 적은 그저 대수롭지 않은 작은 장애물에 불과하다.

그리 무겁지 않아 보여도 25m의 높이에서 레펠 강하하는 그들이 짊어진 장비의 무게는 약 50kg. 85종의 육상장비, 448종의 해상구조장비, 240종의 비행장비, 238종의 산악구조장비, 129종의 응급장비 중에서 구조 상황에 따라 선별하여 구비한다. 그들은 1,140종의 장비를 자유자재로 다룬다.

Q 항공구조사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A 고공강하훈련, 잠수훈련, 해상구조훈련, 산악구조훈련, 병벽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등 기초훈련과정을 거치는 데에 1년 정도 소요된다. 강인한 체력을 가진 부사관 중에서 선발된 인원들이 항공구조사가 되기 위해 도전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체의 절반 정도가 탈락한다. 거기에 실전훈련과 교전상황에 대비한 특수훈련을 거쳐 실제 구조작전에 투입되려면 최소 5년의 훈련기간이 필요하다.

Q 항공구조사들은 조종사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구조하러오는 헬기는 그들을 어떻게 알아보나?

A 구조사와 조종사는 약속된 비밀 표지에 따라 서로를 확인한다. 구조헬기와 전투기는 이들 구조사와 조종사를 2중 개인 식별 절차와 통신기와 적외선 라이트를 사용해 암호화된 유도절차에 따라 서로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공중구조팀은 철수한다. 설사 완벽하게 일치하는 정보로 우군임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헬기에 오

르기 전에는 무장을 해제하고 포박을 당한다. 아군 지역으로 이동해 다시 한 번 개인식별 절차를 거친 후에야 풀려난다. 적지에서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확인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아쉽게도 비밀이라 세부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Q 비상탈출한 조종사 사진을 보니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던데 그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오나?

A 항공구조사들의 강인한 체력은 단순히 적과 교전하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상으로 꼼짝할 수조차 없는 조종사들을 헬기와의 접선 지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보통사람들은 장비와 사람을 모두 짊어지고 암벽과 빙벽을 오르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Q 이들은 조종사만 구하나?

A 1958년 제33구조비행대대로 출발한 제6탐색구조전대는 평시에 항공기 사고구조, 응급처치, 후송 등 “하늘의 119”의 역할을 비롯하여 육상·해상사고 시에 인명 탐색구조, 환자수송, 수해구조, 산불진화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약 5,000여 명의 인명을 구조한 진정한 守護戰士들이다.

이들은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침투, 구조, 교전, 도피탈출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다. 만일 이들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면, 이번 주말 커다란 배낭을 짊어지고, 친구나 가족 중 한 사람을 이끌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산을 오르내리고, 강을 만나면 수영하는 체험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난 못한다. ●





From Zero to Hero

이미도 | blog.naver.com/midomiho
 조선일보土日 Why? 섹션 '이미도의 영화 속 영어' 칼럼 연재
 신문집 <나의 영어는 영화관에서 시작했다> 지음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블록버스터의 탄생

니콜라스 케이지가 등장한 탈옥 액션 영화 <콘에어 Con Air>가 중국에선가 홍콩에선가 개봉했을 때 그곳 제목이 '경천동지(驚天動地)'였다고 해요.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함'을 뜻하는 그 사자성어말이지요. 드림웍스(Dream Works)가 그 표현에 딱 어울리는 초대형 사고를 또 한번 쳤습니다. 이번엔 초록 괴물 '슈렉'이나 정체성의 혼란에 빠진 사자 '알렉스' 대신 팬더(Panda)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켰고요.

모름지기 4~5년 전에 제작기획을 시작했을 테고, '미래의

관객'들은 어떤 애니메이션을 기대할지를 꼼꼼하게 연구한 결실이 <쿵푸 팬더 Kung Fu Panda>일지니, 그들의 창조적 상상력에 우리의 눈동자 또한 그저 경천동지할 따름이지요. 2008년 8월 8일에 개최되는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발맞추어 전 세계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마케팅플랜 또한 혀를 내두르게 하지만, 네 발 가진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제일 느려터질 것만 같은 팬더가 성룡이나 이연걸처럼 표표한 기함으로 "아보~~~오!"를 날리고, 필살기를 내리꽂는 쿵푸를 하게 되리라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창조적 상상력이 빚어낸 오리지널 창작 시나리오

“전설 속 영웅을 노래한 전설적인 전설에 따르면 그의 쿵푸 실력은 시쳇말로 전설적이었다. Legend tells of a legendary warrior whose kung fu skills were the stuff of legend.” 이런 내레이션을 시작하는 도입부에서부터 주인공 포(잭 블랙)는 검정색 망토를 휘날리며 휘황찬란하게 등장하지요.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최고수 악당들과 대적하여 제압해 버리는 그의 활약이란...’ 허걱, 사실은 이런 내용이 꿈 주인공의 꿈이었을 줄이야!

포의 아버지는 특이하게도 오리입니다. ‘혈관에 육수가 흐르는’ 면빨의 달인인 아버지를 도와 포는 열심히 국수를 뽑지요. 이제 어엿하게 ‘면빨의 청춘’이 된 포! 하지만 그의 관심은 ‘제이드 궁전 Jade Palace’에서 개최될 무술시합에만 온통 쏠려있습니다. 그곳에서 대사부인 우그웨이(Oogway)와 시푸(Sifu) 사부가 평화의 계곡을 지켜줄 ‘용의 전사 Dragon Warrior’를 뽑을 예정이거든요. 마침내 최고의 쿵푸 마스터인 ‘무적의 5인방 The Furious Five’이 등장하고, ‘용의 전사’를 선발하기 위한 토너먼트가 펼쳐지지요. 그 순간 <터미네이터 Terminator>의 주인공처럼 하늘에서 ‘뚜~둥’ 떨어지는 정체불명의 동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포이지요.

무명에서 영웅(From Zero to Hero)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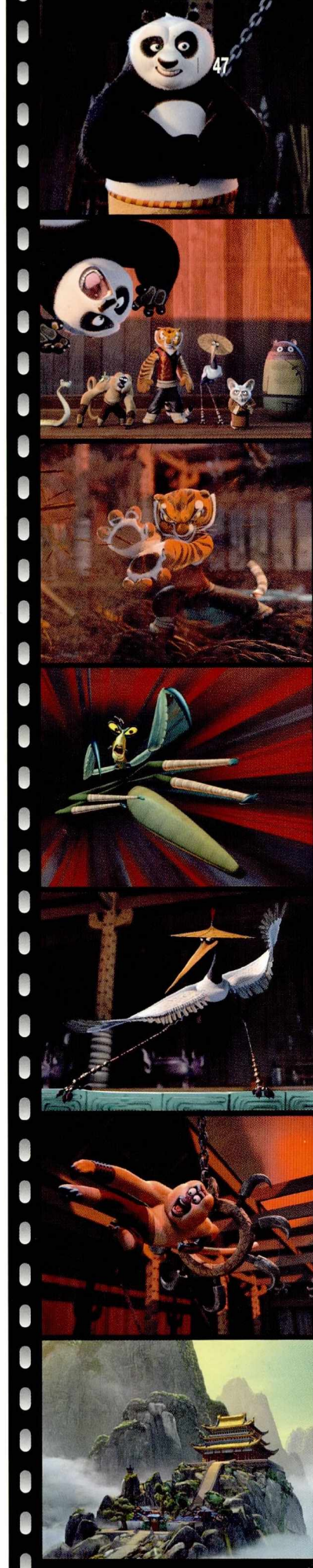
‘용의 전사’로 간택되길 기대하며 머리를 조아리던 5인방, 즉 호권의 암컷 호랑이(Tigress), 원숭이권의 몽키(Monkey), 사권의 바이퍼(Viper), 당랑권의 맨티스(Mantis), 학권의 크레인(Crane)을 제치고 팬더가 후계자로 지명될 줄이야! 얼떨결에 ‘무명에서 영웅으로’ 거듭나게 된 포가 식충이답게 ‘식권’을 발휘하여 악당(Antagonist)인 타이링(Tai Lung)을 상대로 맹활약을 펼치게 되는데요, 나머지 스토리라인은 스포일러이기에 가려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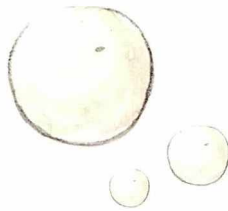
새 영화를 보러갈 때마다 저는 항상 헝그리 정신에 불타곤 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번 영화에서는 또 어떤 명대사를 만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늘 생기거든요. <쿵푸 팬더>도 저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았답니다. 어쩌면 이 영화의 주제일 수도 있는 명대사이지요. 얼떨결에 ‘용의 전사’로 뽑히긴 했지만 수련이 험난하기만 하여 포는 결국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지요. 한날 무기력한 꿈에 불과하기 때문에 돌아가 식당을 돌보며, 앞날을 위해 ‘면빨의 달인’이 되겠다고 하자 사부님이 이런 잠언을 던집니다.

어제는 히스토리, 내일은 미스터리, 오늘은 선물

“어제는 지나간 과거이기에 히스토리! 내일은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미래이기에 미스터리! 하지만 오늘은 선물이니라. 그렇기에 현재인 오늘을 프레전트(Present)라고 부르지.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s why we call it the present.”

과거에 갇혀있으면 발전할 수 없고, 불확실한 미래에 집착하면 그 결과가 허황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한 선물처럼 여기고 간직하면서 현재에 충실하다보면 큰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도이지요. 이 잠언에 힘입어 진리를 깨친 포는 드디어 평화의 마을을 사수하고, 시민들을 지켜주기 위한 막중한 미션을 떠맡게 되는데...!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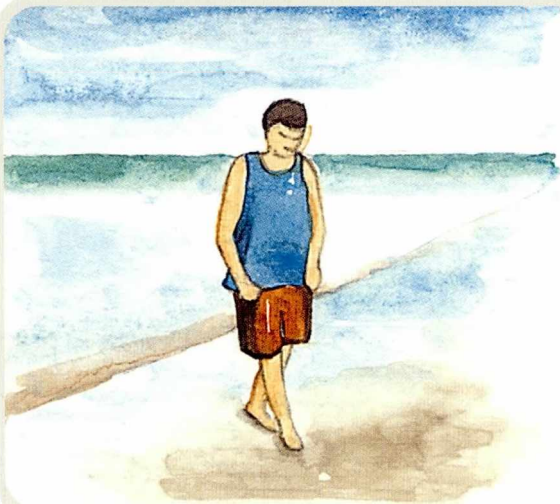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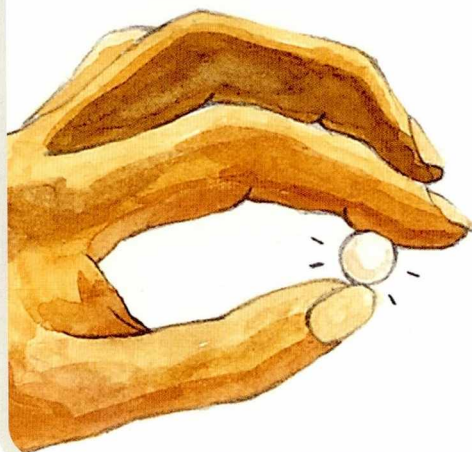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그림 김영은

© 일일병영교육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편지」 中



한 청년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아름다운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핏 보기에도 그 값어치가 상당히 높았고 보는 사람들마다 찬사를 이기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귀한 보석을 가지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그 진주를 애지중지하며 매일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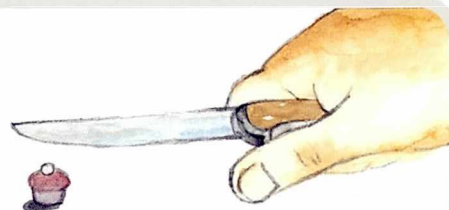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보석을 들여다보던 청년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완전무결(完全無缺)하다고만 생각했던 진주에 티끌같이 희미한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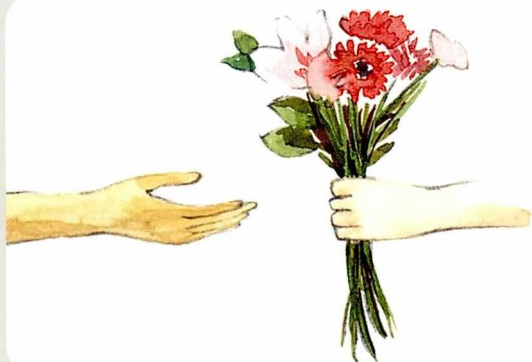
청년의 눈에 그 점은 나뉘어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주를 구경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점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아끼는 진주에서 옥의 티와 같은 허물을 없애버릴까'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주의 껍질을 얇게 깎아서 흠이 보이지 않게 만들겠다고 생각한 청년은 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진주의 껍질을 벗겨 나가는데도 그 미세한 흠은 사라지지 않았고, 도리어 흉한 칼자국만 남아 진주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진주는 원래 만지나 돌과 같은 외부 물질이 들어 올 때 진주 조개 속에서 진액(津液)이 분비되고 그것이 굳어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주라면 진액이 분비되는 공간이 가느다란 실처럼 진주의 중심부까지 연결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즉 자연산 진주의 흠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면서도 청년은 그 흠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결국 진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크게 훼손하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값지고 귀한 보석이라도 작은 티끌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은 허물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평하기도 하고 때론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두 가지의 결점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이 진주처럼 아름다운 것은 그 결점을 감싸주고 메워주는 사랑과 이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름철 건강을 대비하는 사자 자세

Simhasana

글 이희주 | 사단법인 홍익요가협회장

여느 때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는 이제 6월을 맞이하여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나 봅니다.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서는 더 이상 봄다운 봄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기후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의 거대한 밀림지역과 동남아시아의 밀림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벌목 등의 환경파괴와 온실가스의 배출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지요. 올해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4월에 한낮 최고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간 날이 있었지요.

동양학적으로 볼 때 올해는 화태과(火太過)의 해로서 말 그대로 불의 성질과 같이 따뜻하고 뜨거우며 분출하고 폭발하는 기운이 자연에 넘쳐나게 됩니다. 이런 성질의 해에는 양기(陽氣)가 지나치게 넘쳐나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억누르기 힘들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질도 많이 나고 화가 폭발하여 사람들 간에 서로 충돌하기도 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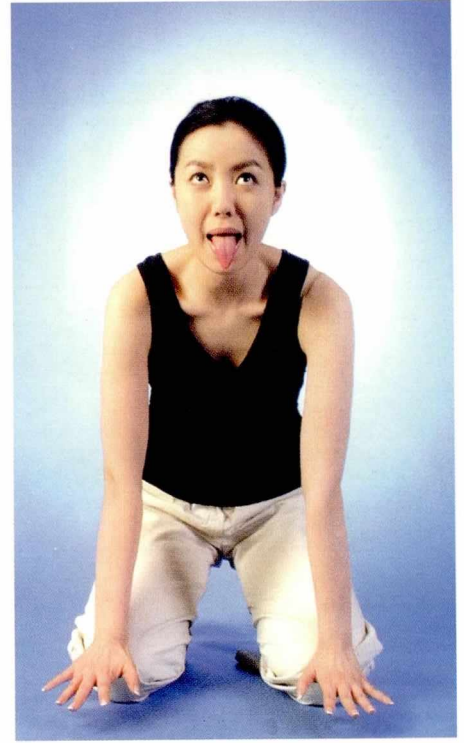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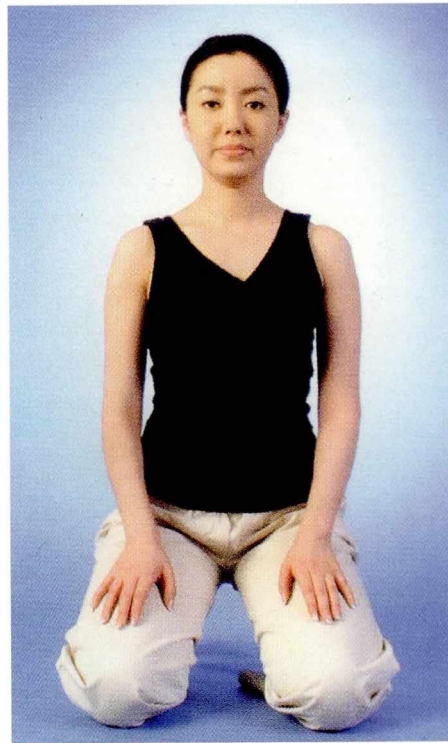
인체로 볼 때는 오장육부의 화기(火氣)인 심장과 소장의 기운에 부담이 와서 평소 가슴이 답답하거나 고혈압이나 협심증 등 심혈관계통의 기운이 떨어지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평소에 어깨가 무겁고 잘 뭉치거나 심하면 견비통, 오십견이 있는 분, 헛바늘이 잘 돋는 분, 잠을 깊이 못자는 분, 땀을 많이 흘리는 분, 그리고 깜짝깜짝 잘 놀라는 분, 화를 잘 못 참는 분들도 올해는 건강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벌써부터 시원하고 차가운 음식을 찾아 찬 음료수나 얼음물을 들이키고 찬물로 샤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차가운 물을 갑자기 들이키거나 찬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오히려 심장이 깜짝 놀라 충격을 받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건강을 지키면서도 더위를 가시게 하는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차가운 얼음물이나 차가운 음료수를 마실 때 처음 한두 모금은 반드시 입 속에서 씹듯이 몇 번 우물우물 거려 체온과 비슷하게 만든 후 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체온과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음식이 위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위장과 심장이 충격을 받는 것을 막아줍니다. 동시에 뇌와 가까운 입 속과 얼굴부분에서 차가운 기운이 오래 머무름으로 인해 뇌가 시원함을 더 빨리 느낀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차가운 음식을 적게 먹고도 상대적으로 시원함을 더 빨리 오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심장과 소장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몸속의 불필요한 열기와 독소를 스트레스와 함께 날려버리는 사자 자세를 소개하겠습니다. 더위로 지칠 때 또는 스트레스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졸릴 때 뜨거운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땀을 흘리며 사자의 기상을 떠올리며 이 자세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㉞



사자 자세 Simhas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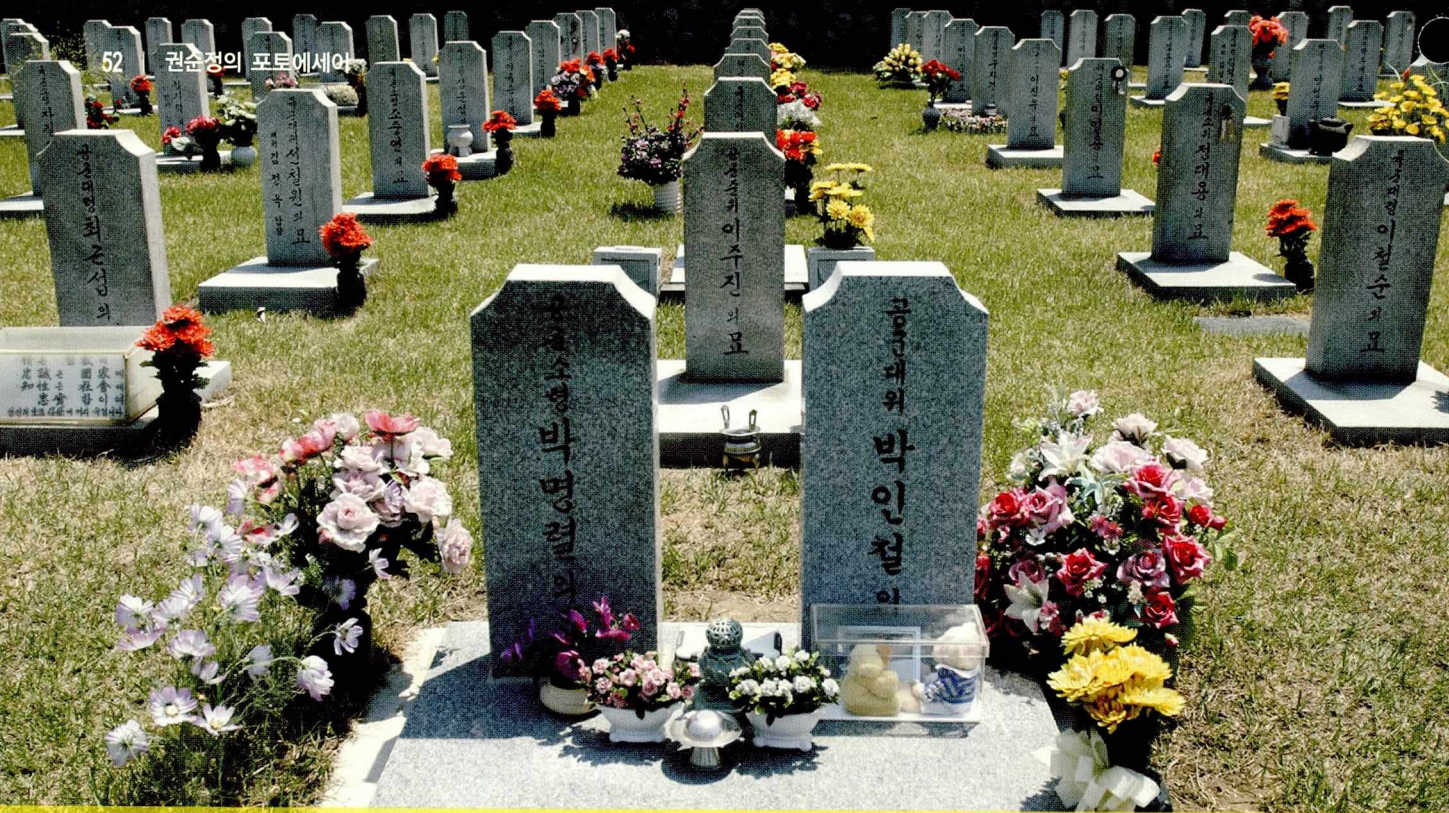
〈방 법〉

1. 무릎을 꿇고 앉아 손바닥을 무릎 위에 둔다.
2. 숨을 마셨다가 토해내듯이 빠르게 내쉬면서 입과 눈을 최대한 크게 벌린다. 혀를 아래턱 쪽으로 빼내고 눈을 위로 치켜 뜬다. 얼굴과 목구멍의 근육이 팽팽해짐을 느끼고 손가락은 무릎 쪽으로 뻗고 두 팔에 힘을 준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천천히 혀, 얼굴, 팔 및 손을 풀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눈은 감고 얼굴 근육의 긴장을 모두 풀어준다.

〈효 과〉

1. 음성이 좋아지고 만트라(Mantra) 수련 전에 하면 좋다.
2. 심장과 소장의 기운을 활발하게 해주어 스트레스 및 정신적 압박을 느낄 때 하면 카타르시스의 효과가 있다.
3.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각종 호르몬 분비를 왕성하게 하므로 신체의 항상성(Homeostasis) 유지에 큰 역할을 한다.
4. 우리 몸에서 가장 풀기 힘든 부분의 하나인 얼굴과 목구멍 근육의 긴장을 없애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

※ 이승용 저, 「음양요가」 (도서출판 홍익요가연구원, 2007년)에서 저자와 출판사의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였으므로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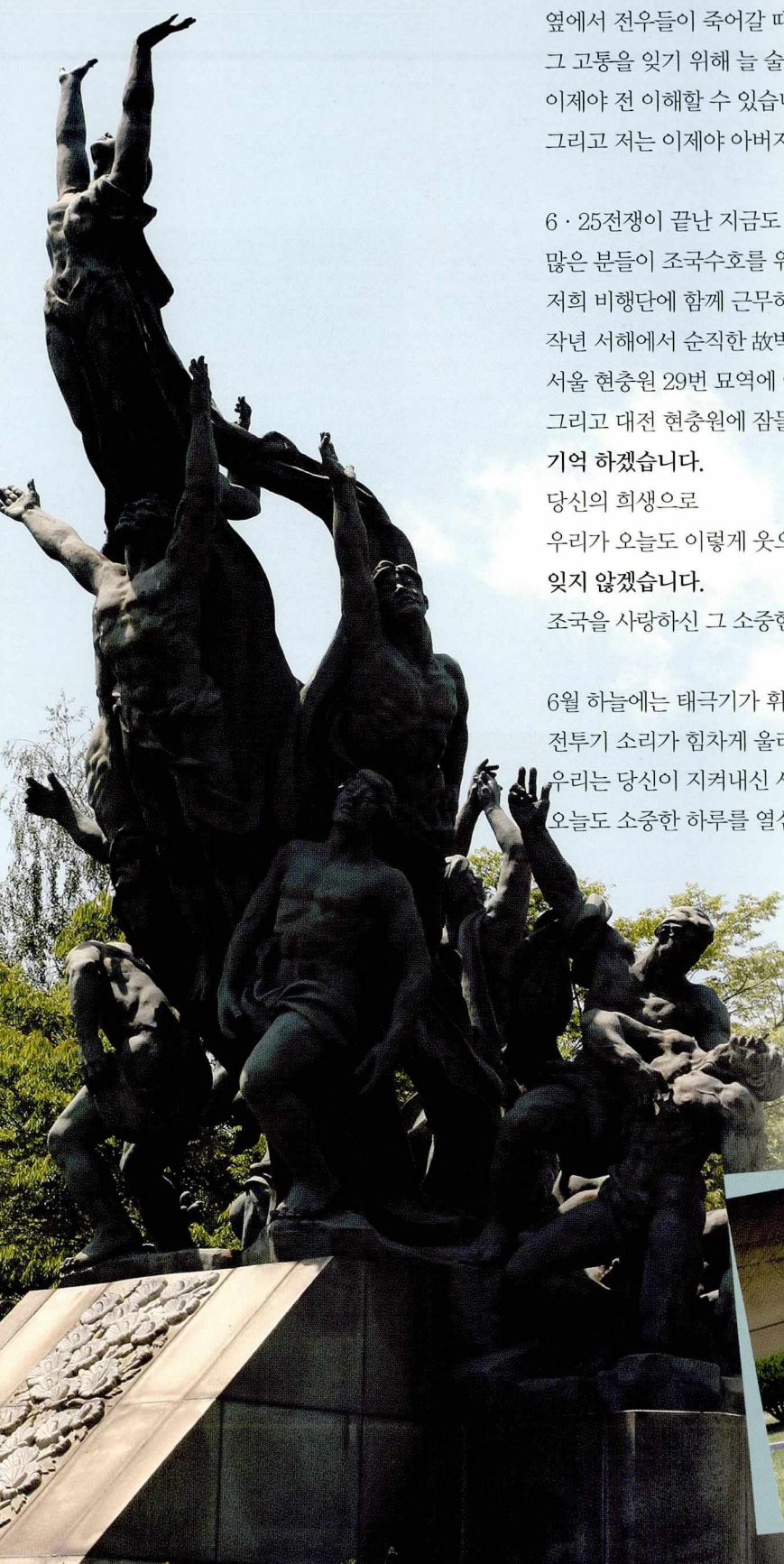


잊지 않겠습니다

글·사진 권순정 | 제20전투비행단

6월이 되면 제일 먼저 '전쟁'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조국을 위해 싸우시다 고귀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며,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그분들의 아픔을 생각해 봅니다.

6·25 참전 용사였던 저의 아버지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늘 악몽에 시달리셨어요.
 악몽을 잊기 위해 술만 드시다 돌아가셨지요.
 그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그저 어린 저에게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전쟁이야기를 하시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아버지에게는 끝나지 않았었나 봅니다.
 전쟁의 아픈 기억들로 또 다른 전쟁을 하셨을 아버지.
 아!
 아버지는 열아홉 살 어린나이에 전쟁터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옆에서 전우들이 죽어갈 때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늘 술에 의지했을 아버지의 전쟁을
이제야 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못난 딸입니다.

6·25전쟁이 끝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저희 비행단에 함께 근무하시다
작년 서해에서 순직한故박인철 대위님
서울 현충원 29번 묘역에 아버지이신故박명렬 소령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대전 현충원에 잠들어 계신故이규진 중령님
기억 하겠습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잊지 않겠습니다.
조국을 사랑하신 그 소중한 마음을...

6월 하늘에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전투기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켜내신 사랑하는 조국에서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열심히 살겠습니다. 



PREVIEW

객원기자 이예진

골드 미스는 가라!

골드 미스터의 결혼에 대한 유쾌한 생각, 뮤지컬 〈컴퍼니〉

골드 미스터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결혼에 얽매이기보다는 독신으로 살고 싶은 뉴욕의 잘 나가는 싱글남과 그 주변의 결혼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쾌하게 그린 뮤지컬 〈컴퍼니〉가 국내에 상륙했다. 인생과 결혼,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목해 보자.

컴퍼니의 매력은 빈틈없이 잘 짜여진 음악과 그에 맞아 떨어지는 절묘한 캐릭터, 상황, 전편에 흐르는 유머 감각과 쿨한 결말을 들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객석에 앉았다면 컴퍼니가 왜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 드라마 데스크 어워드 6개 부문을 수상했고, 토니상 14개 부문 노미네이트라는 진기록을 세웠는지 금세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공연의 연출을 맡은 이지나 씨는 “단순하지 않으면서, 캐릭터와 상황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음악의 매력을 즐기길 바란다”며 “이 작품을 통해 ‘과연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최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주연과 조연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여러 배역이 골고루 비중 있게 등장하는 컨셉 뮤지컬이라는 특이한 공연방식도 눈여겨 볼만하다.

기간 : 2008년 8월 17일까지

가격 : R : 5만원, S : 3만 5천원

장소 : 서울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홈페이지 : www.musicalcompany.co.kr



전 세계 30개국 300여 개 도시에서 20만명이 본 NOW AND FOREVER! 뮤지컬 〈캣츠〉

올해 캣츠의 나이는 몇 살일까. 한국 나이로 스물여덟이다. 정말 젊은 혈기다. 그런 캣츠를 전 세계 300여 개 도시에서 20만명이 만났다. 지난 해 오리지널팀 내한에도 한국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 공연은 오리지널팀과 한국팀의 공연이 연이어 진행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같은 음악 같은 스토리를 취향에 따라 골라보자.

두 버전의 공연이 기획됨에 따라 한국공연은 제작 전반에 걸친 해외 기술의 현지화와 배우들의 장기적이고 현장감 있는 리허설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갖추게 됐다. 한국공연을 위해 기술팀 스태프와 무대, 의상, 조명, 세트, 음향, 분장 등 크리에이티브 팀 전원이 입국해 모든 디자인과 제작을 진행한다. 매 공연마다 스태프만 120명이 투입된다.

1년에 한 번 있는 고양이들의 축제인 ‘젤리콜 볼’에 모인 각양각색의 고양이들의 독특한 인생경험을 노래한 뮤지컬 캣츠. 이 무도회에서 새로 태어날 고양이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들이 풀어놓는 개성 있는 인생의 단면이 노래를 더 아름답게 한다. 사랑하는 연인, 고마운 가족에게 화려한 무대와 환상적인 안무,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해보자. 뮤지컬 속의 〈MEMORY〉는 이미 태평양을 건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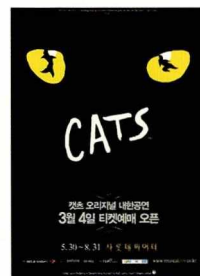
기간 : 오리지널팀/8월 31일까지, 한국공연/9월 중순~2009년 1월 말

가격 : 화/수/목/금/일 저녁공연 VIP : 13만원, R : 11만원, S : 8만원, A : 6만원, B : 4만원

토/일 낮공연 VIP : 14만원, R : 12만원, S : 9만원, A : 6만원, B : 4만원

장소 : 서울 샤롯데씨어터

홈페이지 : www.musicalcats.co.kr



☆ 항공소년단은 공군의 미래입니다 ☆

-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이 항공우주를 향한 꿈이 되고 현실이 됩니다.-



◆ 한국항공소년단은

기존 청소년단체 활동과 차별화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 꿈나무들에게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을 심어주고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장병 1인 1구좌(1만원) 갖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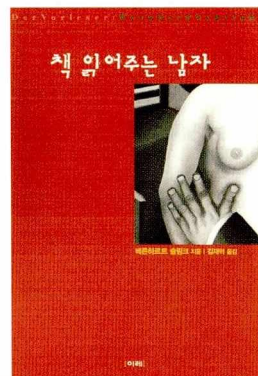
◆ 참여방법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0-996245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항공소년단)
- 후원금은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베른하르트 술링크 지음

책 읽어주는 남자



글 중령 강성구 | 공군본부 비서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피해함이 남아있었을 1950년대 독일. 열다섯의 소년과 서른여섯의 성숙한 여인의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랑으로 시작되는 이 소설의 전반부를 읽으면서 나는 잠시 나의 사춘기를 생각해 보았다. 지금도 성욕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지만 가장 심하게 성적 호기심과 충동에 사로잡혔던 때는 나 역시 이 책의 주인공과 같은 열다섯 살 때였던 것 같다.

“그녀는 진지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샤워실과 침대로 이끌기 전 반시간가량 그녀에게 「에밀리아 갈로티」를 읽어주어야 했다. 이제는 나도 샤워를 좋아하게 되었다. 내가 그녀의 집에 올 때 함께 가져온 욕망은 책을 읽어주다보면 사라지고 말았다... 샤워를 하면서 욕망은 다시 살아났다. 책 읽어주기, 샤워, 사랑행위, 그리고 나서 잠시 같이 누워있기. 이것이 우리의 만남의 의식이 되었다.”

어디로 보나 ‘선데이 서울’에 ‘사춘기 소년을 성의 제물로 만든 요부’라는 부제와 함께 소개될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나는 이 책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최초의 독일 소설이며 미국에서만 100만부 이상이 판매된 독일 현대문학의 진수라는 명성에 깊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기 어려운 걱정 of 회오리만 남긴 채 홀연히 사라진 이 여자(한나)를 주인공이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수년이 지난 후 법대생의 신분으로 참관한 한 재판에서였다. 이 책의 2부는 이렇게 유대인에게 비인도적 행위를 한 수용소 여자감시원들에 대한 공판에 피고로 서있는 한나를 조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주인공은 나치가 독일민족의 이름으로 행한 역사적 죄악과 그 역사 속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한나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게 된다. 글을 못 읽는 한나가 문맹임을 감추려는 행동 속에 더욱 극단으로 몰리는 것을 보면서 주인공은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한나가 더 중요시 하는 것이 감형이 아니라 문맹을 감추는 것임을 인정하는 과정은 그에게 깊은 고뇌를 안겨주었지만 결국 주인공은 야생의 법칙을 존중하여 사자에게 잡힌 사슴을 구하지 않고 지켜보는 다큐멘터리 작가처럼 바라보는 것 이외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결국 종신형을 받은 한나에게 책을 읽고 녹음한 테이프를 10년 넘게 보내면서 그들은 또 다른 형식의 사랑을 나누며 소통한다. 18년간의 복역 끝에 사면을 받은 한나와 주인공은 할머니와 중년 신사의 모습으로 출옥 직전에 재회한다. 그러나 주인공이 자유의 몸이 된 한나를 맞으러 교도소로 가는 날 한나는 자살로서 자신의 생을 마감한다. 뒤늦게 찾아간 그녀의 감방에는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상을 받는 자신의 신문기사와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보는 주인공의 모습은 담담히 묘사되었음에도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

‘여성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독일 문학의 전통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남자와 여자만이 만들 수 있는 사랑의 신비, 죄악을 저지른 전쟁세대와 순결한 전후세대가 상징하는 선과 악의 단절될 수 없는 흡착력, 그리고 운명의 거대한 흐름에 끼어들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무력감을 동시에 중첩되게 느낄 수 있었다. 딱 떨어지는 수학적 논리만이 진리라고 굳세게 믿고 있는 이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다. ④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월간 **공군** 편집팀

3 2 1 - 9 2 9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신 : 참모총장

참조 : 정책홍보실장(문홍과장)

발신 :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6295, 02) 506-6295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퀴즈정답

1.

2.

3.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퀴즈정답

1.

2.

3.



Quiz

월간 「공군」 6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7월 21일까지

1. 웹진 공감에 연재되고 있는 것으로 젊은이들의 열정과 사랑을 주제로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공군의 태동을 그린 장우룡 작가의 만화 제목은?
2. 노스 아메리카사에서 생산한 베스트셀러 항공기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고 바우트 원 계획에 의해 한국 조종사들에게 최초 10대가 보급되기도 하였던 이 항공기의 명칭은?
3. 공군은 한국 최초우주인 배출을 위해 우주인 배출기관으로 선정된 항공우주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우주인 배출사업 시작부터 선발기준을 포함한 선발업무 및 후보자 정밀 신체검사, 항공 생리훈련, KT-1 훈련기 탑승 등을 지원하였다. 우주인 배출사업을 통해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한 한국 최초우주인의 이름은?

※ 5월호 정답 및 당첨자는 7월호에 발표합니다.

간첩 · 테러범 · 방산스파이 신고는 국군기무사령부
(☎ : 1337, www.dsc.mil.kr)
신고하는 1등 국민에게 337 박수를!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정책홍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 afzine@airforce.mil.kr(인터넷)

sjy0402@af.mil(인트라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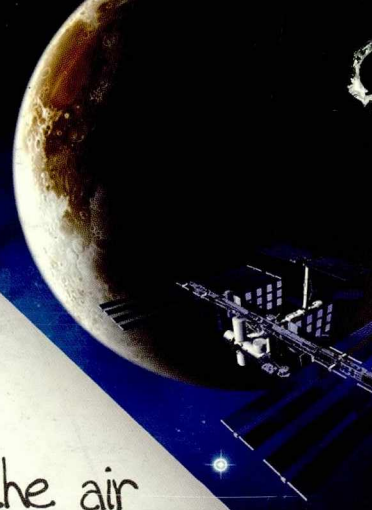
전화번호 : 02-506-6295/042-552-6295





Beyond the air

대한민국 공군, 하늘을 넘어 우주로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